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주희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감과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2017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수동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감과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주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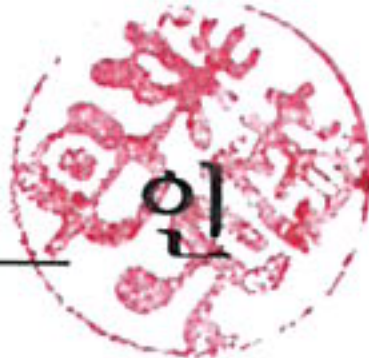
사회복지학과


조수동


인 준 서


조수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0월

심사위원장 조 윤 주 인 

심사위원 양 승 애 인 

심사위원 서 연 득 인 

심사위원 임 선 영 인 

심사위원 백 주 희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감 사 문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드시어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통하여 고귀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심과 스승을 통하여 눈과 마음을 밝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업과정에서 현 사회의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못난이들의 음해로 참으로 감당치 못할 마음 상함이 있었지만, ‘내 뜻이 하늘과 같다면 하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내 뜻이 부모와 스승과 같다면 세상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깨달음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상담 전문화’에 대한 석사 논문을 발표한 후로 장애인 결혼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한 결과 200여 쌍의 장애인 부부를 탄생시켰지만, 약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마당에 부족하나마 박사논문을 발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고마운 길을 오롯이 인도하신 박주희 교수님께 참 스승의 예로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이신 조윤주 교수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늘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세심하게 잘 지도하여 주신 임선영 교수님, 혹여 놓칠까봐 끝까지 챙겨주신 양승애 교수님, 현장복지의 전문성을 잘 챙겨주신 서연숙 교수님 그리고 고선강 교수님과 이승기 교수님의 특별한 지도와 관심 덕분임을 가슴 가득 담겠습니다.

끝으로 설문에 응하신 어르신과 도움주신 사회복지사 그리고 대학원생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많이 기뻐하실 부모님 박상만·차은주님, 조병옥·이종선님께 큰 감사를 드리오며, 늘 독려하시는 김진복 교수님과 우리복지와 명락복지재단 가족 그리고 이 땅의 소중한 파트너의 안녕을 위해 손 모아 기도드리며 2016년을 보냅니다.

조 수 동 올림

논문개요

본 연구는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감과 성 관련 특성들을 파악하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감과 성 관련 특성 및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및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등을 탐구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일선 복지현장에서 노년기의 파트너 곧 부부 및 이성친구와의 친밀감 형성과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조사 및 분석방법으로는 서울시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을 이용하시는 분으로 한글을 이해하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배포한 1,200부 중 1,04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전체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2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및 χ^2 검증과 t-test, 일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년기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노년기 배우자 친밀도와 이성교제 친밀도의 전체 평균은 3.63점으로 같았다. 성 인식도 전체 평균은 2.57점으로, 성 태도, 성 중요도, 성 욕구 순으로 성 인식도가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들 중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는 43.2%이었고, 성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7.8%이었다.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들 중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는 68.5%이었고, 성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8.3%로 매우 높았다. 주관적 안녕감의 전체 평균은 3.46점이었다.

2.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보면, 노년기 파트너가 있는 응답자의 친밀도는 이성친구(M=3.63)와의 친밀도와 배우자(M=3.63)와의 친밀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인식도의 세부 요인으로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 모두 파트너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고, 이성친구, 배우자, 파트너 없음 순으로 파트너 유형별 성 인식도가 높았다.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유무의 차이는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한다’가 68.5%로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안한다’가 56.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이성친구(M=4.03)와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가 배우자(M=3.27)와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성별과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배우자 친밀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동거가족과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이성친구 친밀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인식도의 차이는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배우자와의 성생활 유무의 차이는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배우자와의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응답자의 성별과 교육수준, 동거가족,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유무의 차이는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고, 노년기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응답자의 성별과 교육수준, 동거가족,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의 차이는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4.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및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년기 배우자 친밀도가 높을수록, 경제수준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성 태도가 높을수록, 성 욕구가 낮을수록, 여성인 경우에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년기 이성친구의 친밀도,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추가투입 된 성 관련 특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양호할수록, 이성친구 친밀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 파트너와의 친밀감 형성과 관계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무엇보다 현재 노인복지관 중심의 복지현장에서 노년기 부부관계는 물론 이성친구 관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 부부 및 이성친구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즉, 현대 사회의 다양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적 · 치료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적 접근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홀로된 노인을 위한 결혼상담센터(Marriage Counseling Center) 설립으로 노년기의 건강한 성과 이성교제, 황혼이혼 예방 및 노인 재혼, 이성교

제를 위한 사전준비교육 및 이성친구와의 만남기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실현가능성이 높은 기존 노인복지 및 상담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시범적인 차원에서 실시하였던 노년기 부부관계강화 및 성 상담사업 등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적 제안으로는 성이란 젊은 층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노년층에게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고취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및 예산확보와 함께, 반드시 노인이 존경받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도록 복지적·교육적·사회적 차원에서 아름다운 효 문화 실현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노년기 파트너 관계, 파트너 친밀감, 성 인식도, 주관적 안녕감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6
1. 노년기 파트너 관계 유형	6
1) 노년기 부부 관계	6
2) 노년기 이성친구 관계	8
2. 노년기 파트너 친밀감	11
1) 노년기 부부 친밀감	11
2) 노년기 이성친구 친밀감	13
3. 노년기 성 인식도	15
1) 노년기 성 욕구	17
2) 노년기 성 태도	17
3) 노년기 성 중요도	18
4.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19
1) 주관적 안녕감의 정의	19
2)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20
3) 노년기 파트너 친밀감 및 성 관련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	25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30
2. 연구문제	31
3. 용어의 정리	31

IV. 연구방법 및 절차

35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5
1) 연구대상자의 특성	35
2) 자료수집	39
2. 연구도구 및 신뢰도	40
1) 종속변수	41
2) 독립변수	42
3) 통제변수	44
3. 자료분석 방법	45

V. 연구결과

46

1. 노년기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일반적 경향	46
2.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검증	52

3.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검증	55
4.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및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검증	74
VI. 결론 및 논의	80
1. 요약 및 논의	80
1) 노년기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일반적 경향	80
2)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82
3)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84
4)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및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89
2. 제언 및 제한점	92
1) 제언	92
2) 제한점	98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36
<표4-2> 배우자 유무	37
<표4-3> 이성친구 유무	38
<표4-4> 변수별 설문구성 및 신뢰도	44
<표5-1> 배우자 친밀도	46
<표5-2> 이성친구 친밀도	47
<표5-3> 성 인식도	48
<표5-4> 배우자의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 만족도	49
<표5-5>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 만족도	50
<표5-6> 주관적 안녕감	51
<표5-7>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의 차이	52
<표5-8> 파트너 유형별 성 인식도의 차이	53
<표5-9>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유무의 차이	53
<표5-10>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	54
<표5-11> 파트너 유형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54
<표5-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친밀도 차이	56
<표5-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친구 친밀도 차이	57
<표5-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인식도의 차이	59
<표5-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욕구의 차이	60
<표5-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	62
<표5-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중요도의 차이	64
<표5-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성생활 유무 차이	66
<표5-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성생활 만족도 차이	68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30
---------------------	----

I. 서 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한결같은 소원은 ‘오래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노인복지의 방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행복하게 장수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를 추구함에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되었으며, 또한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전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구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3.2%로 고령사회(aged society)¹⁾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 노인 비율 20.0%가 넘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가 된 곳은 86개로 전체 38.1%에 해당된다. 이 중 가장 높은 전남 고흥군은 무려 38.5%이며,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1.3%인 동구를 비롯하여, 서구 · 중구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초고령사회가 되었다는 인구조사 결과는 여러모로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급속적인 노령화 문제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낮은 삶의 질과 안녕감 수준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대표적 지표인 자살률을 살펴보면, 2016년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한눈에 보는 보고서’ 및 통계청의 ‘2015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8명으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지만, 무려 58.6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특히 70-8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의 지속적 증가추세로 인하여 10수년간 자살률 1위라는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1) UN(국제연합)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7.0%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초과할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노년학자 Cowgill과 Holmes(1972)는 노인문제에 대한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을 통하여 “한 사회의 현대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더욱 하락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생애주기적으로도 노년기는 관절통을 비롯하여 시각·청각 등의 신체적 기능장애와 함께 우울증·치매·뇌졸중 등의 정신적 기능의 장애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는 사회·경제적 상실감과 함께 신체·정신적 고통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독특성을 갖고 있기에 철저한 노후준비가 없는 경우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복지나 사회보장제도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급속적인 인구 고령화와 높은 노인 자살률 문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문제·경제문제·여가문제·가족 및 사회적 역할 문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 ‘상실감’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장진경, 2002)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고통은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불안과 외로움이라 하겠다. 오늘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홀로된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년기 배우자와의 사별은 신체적 아픔과 정신적 질병 그리고 최악에는 노인자살로 이어지는 등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손화정, 2008).

이에 본 연구는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인구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노인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주된 요인으로 보고, 특히 파트너 곧 부부 또는 이성친구의 유무와 역할 그리고 파트너와의 친밀감과 성생활 유무 및 만족도, 성 인식도 등의 성 관련 특성을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보았다.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이온수(2014)는 노인의 부부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노년기는 신체적 쇠약함과 함께 변화가 많은 시기로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상실 및 배우자 상실과 함께 부부간에도 불안이나 회피 등으로 인하여 주관적 안

녕감이 낮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으며, 김유경(2000) · 원영희(1995) · 정인숙(2003) 등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노년기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른 변인들보다 주관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부부가 모든 생활의 가장 중심이고 기본이 되는 노년기에 주관적 안녕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한편 이성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생 변함없이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수명 연장에 따라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개인적 · 사회적 관심은 무척 커지고 있다.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초기 연구인 1997년 임춘식과 최복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해 무려 9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히 60-70대 남성들의 80%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성의 78%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을 만큼 노인의 이성교제는 오래전부터 매우 절실한 문제였음에 틀림이 없다. 이는 최근 연구인 이지은(2015)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의 77%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가 주관적 안녕감을 비롯한 생활만족도, 자아효능감 및 정신건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응갑, 2002; 손화정, 2008; 이예중, 2001; 이지은, 2015; 원대호, 2003; 정재필, 2009; 홍영희, 2002 등).

가족생활주기상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생활과는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자녀독립 후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pre-retirement), 직장 은퇴 후의 일정시기(early retirement), 고령의 노부부시기(late retirement)로 나눌 수 있다(임재옥 외, 2015). 특히 노년기에는 자녀와의 대화단절,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혹은 이성친구와의 관계형성 욕구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증가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 파트너 즉 부부 및 이성친구 변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노년기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는 주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부부만을 대상(김경신 · 이선미, 2001; 김미라, 2001; 김주희 · 이창은, 2000; 김홍란, 2004; 박연옥, 2011; 이온수, 2014; 이혜자 · 김윤정, 2004; 조성희 · 김윤정, 2011 등)으로 하거나 또는 홀로된 노인만을 대상(고연희, 2008; 김은진, 1995; 김응갑, 2002; 김현덕, 2012; 박찬섭, 2002; 배나래 · 박충선, 2002; 손화정, 2008; 윤종옥, 2010; 이예중, 2001; 이지은, 2015; 이지희, 2005; 원대호, 2003; 장진경, 2002; 전차수, 1998; 전현식, 2001; 정종렬, 2010; 조황숙, 2000; 최정애, 2000 등)으로 하는 즉, 연구대상을 별도로 구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주제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 부부 친밀감 · 이성친구 친밀감 · 성 인식 · 주관적 안녕감 등을 각각의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대상별 또는 연구 주제별 구분을 하지 않고 배우자 또는 이성 친구를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단일 연구대상으로 보고 파트너 유형별 비교연구를 함으로써, 주요 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는 어떠한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하는 또 다른 관점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감과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 중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등의 집단별 유형에 따른 파트너 간 친밀감 정도 · 성생활 및 성 인식 정도 · 주관적 안녕감 수준 등을 분석하는 실증적인 조사연구이다.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강화 관련 선행연구 즉, 노년기 ‘여가문화활동’ · ‘자원봉사활동’ · ‘생산활동’ · ‘소득수준’ · ‘경제적 스트레스’ · ‘세대 간 유

대관계’ · ‘유머감각’ 등의 다양한 연구(김경호, 2004; 김영만, 2001; 김유경, 2000; 김현란, 2014; 박혜성, 2007; 윤에스더, 1999; 이정훈, 2012; 이향란, 2013; 조성자, 2011; 조윤주, 2006; 최갑현, 2016 등)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부부 또는 이성친구와의 친밀감과 성 관련 특성은 노인복지 현장의 경험적 근거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파트너 간의 친밀감 및 성생활 그리고 긍정적인 성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홀로된 노인들을 위한 이성교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Erikson(1959)이 말한 노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자아통합(ego integrity) 즉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아 보람되고 가치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오랜 삶을 통한 노인 특유의 지혜를 얻도록 하는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를 이루도록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파트너 관계 유형

1) 노년기 부부 관계

인구 고령화와 함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부부가 함께 지내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노년기 부부 관계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노년기의 삶에서 배우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사회적·학문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영역이 노년기 부부관계이다. Carstensen(1993)은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와의 감정적인 관계는 오히려 더욱 긴밀하게 유지된다고 하였다. 또한 노년기는 학업, 직장, 결혼 등으로 자식들이 집을 떠나 빈 둥지(empty nest) 시기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은퇴라는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때이다. 수명연장으로 퇴직 후 가정 내에서 지내는 시간은 많아지고 노인단독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노년기는 새롭게 부부관계를 정립하여야 되는 시기이다(김홍란, 2004).

노년기 부부관계는 지지를 제공하며 정서적인 행복감을 증진시켜 성공적인 노화를 예측하도록 하며(Antonucci & Akiyama, 1995),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령, 2008; 임주영·전귀연, 2004). 더불어 노년기 부부간의 관심과 애정교류 및 정서적 지원과 상호작용이 빈번할 때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고(Perlmutter & Hall, 1985), 부부 지지와 친밀감은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Mannell & Dupuis, 1996; 정태연·조은영, 2005).

또한 부부관계의 만족을 추구함에 있어서 부부의 성생활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큰 것이다. Anderson(1993)에 의하면 은퇴 후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애정적 지원과 성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하여 노년기의 성공적인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애정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Kahn(1979)은 배우자와의 정서적 관계가 친밀할수록 만족스런 성생활을 하며, 결혼생활의 만족감은 더 높은 빈도의 성적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노년기의 성과 삶의 질 간에도 상당한 관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능동적인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았으며(김주희 · 이창은, 2000),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성생활을 통해 삶의 존재, 즉 자신이 살아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서혜경 · 이영진, 1997). 오진주(1999)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적 욕구가 우울과 신체 자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행복할수록 성생활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성이 결혼만족도, 삶의 질 등과 관련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호르몬은 육체의 발육과 컨디션, 동시에 정열의 근원이 되며 정신적 활동의 에너지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성생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핵가족 하에서의 긴밀한 부부간의 정서적 교류는 성 관계를 통하여 표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성적 적응도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김홍란, 2004).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Starr와 Weiner(1981)가 60-90세까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는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Weinberg(1982)도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의 70%가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안태윤 · 김영혜 외, 2011)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노인의 70.0%가 배우자와 성생활을 하고 있고, 여성노인의 61.4%가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은 결코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며 노인의 부부성생활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만족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성생활과 성적인 조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상태이며 심리적인 동요를 가져올만한 상실이나 변화가 많은 시기로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황혼 이혼(december divorce) 등으로 인한 상실감은 노년기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임춘희 외, 1997). 더구나 노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부부관계가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시기이므로, 성적 대상이자 치료 및 인격보완의 대상인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신체, 정신건강을 가까이에서 보살피 줄 훌륭한 간호인이자 동반자를 잃었다는 점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심리적 고통 · 소외 · 불편 등을 겪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배우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하겠다. 즉 배우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은 파트너가 있는 부부집단에 비해 더 높은 불만과 더 많은 신체 질환을 갖고 있고, 더욱 빈번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성숙, 윤숙례, 1993).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간의 주관적 안녕감과 영향요인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노년기 이성친구 관계

인간은 누구나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특히 나와는

다른 성을 가진 이성 파트너와의 만남을 통해 동성이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심과 교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중한 것이다. 홀로된 노인들은 사회관계망의 축소로 주변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녀와의 대화단절 등의 이유로, 사회적 활동이 많았던 젊었을 때보다 Maslow의 3단계 욕구인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해당하는 이성 친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이지희,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배우자 상실감은 노인의 사기(morale)나 생활 만족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며, 자신의 정체감(identity) 혼란을 초래하여 빠른 죽음을 예견하게 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는 것이다.(김은진, 1995).

배나래·박충선(2002)의 홀로된 노인대상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경우 72%가 긍정적으로 이성교제를 희망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연령이 증가해도 노인들은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노인들이 노후의 고독과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한 일환으로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다.

윤옥중(2010)은 이성교제를 이성간의 로맨틱한 감정이 있는 사회활동으로 데이트·로맨스 의미로 표현했으며, 친밀감과 애정을 기반으로 상호합의에 의해 행해져야한다고 하였다. 박찬섭(2002)은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는 성적인 필요를 느끼거나 결혼을 할 수 없을 때 친밀감이나 자기 위안,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직접 성관계를 갖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교제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와 삶의 의욕이 생기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용이해지며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느끼게 됨으로 삶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 받게 된다(정종열, 2010).

최복란(1996)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50%와 여성의 78%가 노년기의 이성교제를 우정관계로 대답하여 노년기의 이성교제는 재혼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홀로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친구로서의 의미로 보

았다. 반면에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에 있어서 성에 대한 관심은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창은(2000)의 연구에서 ‘멋있는 이성을 보면 여전히 좋고 흥분되는가?’ 라는 질문에 남성노인의 84%, 여성노인의 1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헌식(2001)의 연구에서도 성적욕구를 해결하고자 이성과 성생활을 하는 노인이 43%나 되었다.

노년기의 성생활이란 단지 성관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손잡기 · 포옹 · 입맞춤 등의 친밀감 표현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행복감이 중요하다(장석주, 1997). 이러한 노년기의 성 활동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주며 연대감을 부여하고 자기효능감을 얻게 하는 등의 정신적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고독감 해소와 삶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윤희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김태현 · 한희선, 1996).

노년기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유성호 · 김혜경(2003)의 연구는 60대 사별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2.7%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문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69.6%가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홀로된 남녀노인을 조사한 김응갑(2002)의 연구에서 이성교제에 대해 남성 노인의 경우 77%, 여성 노인의 경우는 60.8%가 노년기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이성교제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50.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3.2%가 ‘아니다’로 응답하였으며, 평균차이를 보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일수록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임춘식 · 최복란(1996)의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이성교제의 성격에 대해서 63%가 우정관계, 17%가 애정관계, 10%가 결혼상대, 10%는 성적상대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성교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성의 94%가 육체적인 관계까지 원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3%는 일반적 사교 관계를 원

하였고, 43%가 육체관계 그리고 14%는 키스까지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노인의 이성교제나 재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홀로된 노인의 다수가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생의 동반자로서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임춘식 · 최복란, 1996; 전차수, 1998; 최정애, 2000; 이예중 · 장진경, 2002 등).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성친구가 있는 노인과 이성친구가 없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노년기 파트너 친밀감

1) 노년기 부부 친밀감

친밀감(intimacy)이란 라틴어 intimus에서 파생된 단어로 ‘내부’ 혹은 ‘내부 가장 깊숙한 곳’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intimate라는 영어는 특별한 종류의 앎을 의미하는데, 지식의 어떤 핵심이고 내면세계의 이해이며,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친교에 의해 그 사람의 가장 깊숙한 본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한다(이혜선, 2002).

Drench와 Losee(1996)는 친밀감의 5가지 요소로 선택 · 상호관계 · 상호호혜 · 신뢰 · 기쁨을 말하면서 노년기에 있어서 이러한 친밀감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Bortz와 Wallace(1999)는 신체적 건강 수준이 성적인 친밀감의 빈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건강한 부부관계란 두 사람의 상호성장을 추구하도록 부부 모두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운데 진정한 친밀감을 얻게 되는 것으로, 부부가 아닌 다른 가족원들 간의 친밀감과 달리 성적친밀감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부친밀감은 애정이나 헌신, 성적 욕구와 같은 개념들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며, 이러한 점에서 부부친밀감은 부부관계의 만족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 부부관계의 인지적 · 정서적 · 행동적인 다면 속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미라, 2001).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년기 유배우자율의 증가는 가족생활주기에서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노부부만 남는 기간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남은 노후를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노후의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김경신 · 이선미, 2001).

일반적으로 노년기 부부는 은퇴로 인해 부부간 접촉이 증가하고 상호작용이 많아짐으로써 이전보다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므로 가까워지면 친밀감이 증대할 수 있으나, 반면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에 익숙하지 않거나 친밀감이 강요되면 오히려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노년기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루는가는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다(박은아 · 이정우, 2003). Carstensen(1993)은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와의 관계는 오히려 긴밀해져서 감정적인 관계의 질은 지속된다고 하였다.

Hunt(1974)는 부부의 성관계는 감정적으로 친밀한 경우에 더욱 만족스러우며, 특히 부인의 만족과 감정적 친밀감 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조성희 · 김윤정(2011)의 연구에서 노년기 부부친밀감은 배우자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고 노년기 부부의 부양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스스로가 친밀감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노년기 부부생활은 제3의 신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 부부들이 젊은 시절에 비해 상대방에게 소홀하거나 무관심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년기 부부관계가 안정적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애정이며, 부부간의 성적인 만족도는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이혜자 · 김윤정, 2004).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성과 친밀감은 노년기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2) 노년기 이성친구 친밀감

인간은 어려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친구, 동료, 배우자 등과 밀접한 인간관계를 갖게 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노년기의 친밀한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상실감을 완화시켜 주고 소외감이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홀로된 노인들이 이성을 통해 느껴야 하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외감과 고독감을 심화시켜 오히려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정재필(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이 이성친구 관계에서 친밀감과 애정, 관계만족도와 상호성과 같은 질적 특성을 높게 느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홀로된 노인에게 있어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애정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의지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임을 말한다. 전현식(2001)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90.8%가 이성교제로 인한 심리적 복지에 만족한다고 하였고, 고독감이나 소외감 또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노인들보다 덜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교제와 친밀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으로는 성별과 성격, 가족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남자일수록 · 외향적일수록 ·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이성친구와의 친밀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Kelley(1983)는 상호 매력을 느끼는 이성과 보내는 시간은 삶의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알게 된다고 했고, Lloyd와 Cate(1985)는 바

람직한 이성교제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이해, 원만한 인간관계, 성숙한 인격의 형성 등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며, 특히 파트너 사이의 흥미나 관심, 요구와 기대의 불일치 등으로 서로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였다(최정애, 2000). O'connor(1993)는 65세 이상의 홀로된 노인 134명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서, 노인 응답자들의 이성 간 우정은 비록 성적인 요소가 없고 실질적 보살핌이 없더라도 거의 배우자와 같은 관계임을 밝혔다.

이처럼 노년기의 이성친구 관계는 가족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통해 노인의 우울감이나 소외감 · 외로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친밀한 애착관계인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이성 친구를 통해 애정이나 친밀감을 형성하여 욕구충족을 하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성관계의 만족도를 높여간다면 노년기 생활에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된다(이예중, 2001).

Brecher(1984)의 연구에 의하면 능동적인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intimacy relationship)를 즐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성생활을 통해 삶의 존재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적욕구는 육체적인 기본 욕구를 넘어 심리 · 정서적인 측면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이창은, 200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노년기 이성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는 노년기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3. 노년기 성 인식도

성(sexuality)이란 사랑과 결혼, 가족과 같은 인간의 감정과 제도들이 뒤엎힌 기제로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흥미와 능력이 저하될 수는 있지만 성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지속되는 것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성에 대한 통념들이 노인 성생활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부정적인 성태도 및 부적절한 성 욕구 및 행동은 부부의 성생활에도 많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규현(2007)은 노년기 성 인식이란 노인이 가지는 성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 정신적 성의 기능을 바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의 상태이며 그로인해 드러나는 행동 및 태도와 성 지식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묘숙(2012)은 노인에게 있어서 성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회적 관계로서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실감을 대신하여 고립감 · 소외감을 해소하여 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장현숙, 2015 재인용).

김홍란(2004)의 연구에서는 과거 젊은 시절 부부간 또는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성생활 경험 및 실태에 따라 노년기의 긍정적인 성태도 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과거 부부간의 성생활 빈도가 높을수록 노년기에 긍정적인 성 태도를 보였고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성생활 인식이란 과거의 성생활 경험을 통하여 노년기의 성욕구나 성생활에 대해 스스로 갖게 된 주관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이는 노인의 성에 대해 가지는 느낌으로써 육체적 · 정신적 성의 기능을 바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의 상태이며, 그로인해 드러나는 태도 및 행동과 성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신지원, 2014).

Spencer(1991)는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①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에 비해 성적 관심과 활동이 저하되는 경향은 있으나 많은 노인들이 활발한 성적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②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에게서 성적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③ 노년기의 성적 활동은 젊은 시절 개인의 성적활동 양상을 반영한다. ④ 성 반응에 있어서의 신체적 활동이 연령에 따라 변하지만 많은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성적 관심과 활동 감소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노년기의 성은 직접적인 성 욕구 충족과 함께 위로·위안이라는 애정적이며 정신적인 의미가 보다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은 성욕·생식·애정이라는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노화로 인하여 생식기능이 끝났다고 해도 다른 성기능마저 상실된 것은 아니다. 즉, 성은 인간적인 애정과 사는 보람인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의 성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노년기의 성행동은 서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 상호 연대감을 얻게 하는 등의 정신적 만족감을 얻게 한다. 또한 성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유지하며 미래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다(임재욱 외, 2015).

한편 김주희·이창은(2000)의 유배우자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 결과 성 욕구는 평균 4점 만점에 2.60점, 성 태도 2.52점, 성 중요도 2.36점으로 나타나 노년기 성이 차지하는 의미나 중요성은 욕구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경제력·교육수준에 따라 성 욕구에 차이가 있었고,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라 성 태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동거유형·종교·교육수준에 따라 성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경자(2002)는 노년기의 성 인식이란 연령·성별·종교·교육정도·성생활빈도·성적욕구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성적 활동에 대해 노인 스스로 갖는 성적 느낌을 포함한 성생활에 대한 욕구·성 태도·성 중요도 등 3가지에 대해 인식·자각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1) 노년기 성 욕구

Maslow(1954)는 모든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태어나며 이러한 욕구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하지만 반면에 욕구가 좌절되면 불만이 생기고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여 삶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인간에게 있어서 성적욕구는 식욕이나 휴식의 욕구와 함께 가장 강한 1차적 욕구이다(최순남, 1999).

이윤숙(1990)은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남성의 성적능력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높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고령일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능력의 개인차가 많지만 남자의 경우는 89.4%, 여자의 경우는 30.9%가 성적 능력이 있는 등 80세 이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노년기에도 성적 욕구는 본능적으로 유지됨을 알 수가 있다.

2) 노년기 성 태도

McCloskey(1976)는 성 태도란 성에 대한 가치나 신념의 표현 형태이며 인간의 성행동을 지배하는 주요 요소라 정의하였다. 또한 Covey(1989)는 성 태도는 사회화의 결과이며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한편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는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의 지배적이었던 기독교의 금욕사상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Kuhn(1976)은 사회에 만연된 노인의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① 노인에게 성은 중요하지 않다. ② 노인의 성적 활동에 대한 관심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③ 노인의 재혼은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④ 남성노인이 젊은 여

성을 찾는 것은 합당하나 반대는 안 된다. ⑤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노인을 성별로 분리해야 된다는 등으로 매우 의미심장하게 기술하였다.

안옥희 · 박인전(1993)의 연구에서 개인의 연령별 · 성별 · 교육수준별 · 총소득별 특성에 따라 성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 연령이 낮은 집단 · 도시에 사는 사람 ·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개방적인 성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승원(2004)의 연구에서 성 태도는 교육수준 · 경제적 지위 · 성 지식 · 배우자의 건강상태 · 결혼상태 · 부부관계의 친밀도 · 성 욕구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배우자가 건강할수록 ·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집단일수록 · 금슬이 원만한 노인집단일수록 · 성지식이 많을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의 성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극복함이 시급한 당면과제라 하겠다.

3) 노년기 성 중요도

노인의 성은 단지 육체적인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성교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노년기 상실감과 소외감을 해결하여 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이자경, 2010). 또한 꾸준한 성생활은 노화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그 자체가 근육운동이며 신체기관의 정상적 기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신지원, 2014). 이처럼 노인의 성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오세근(1997)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면서 성은 단순히 본능을 충족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신체에 의한 자기표출이며, 사람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표현방법이라고 하였다.

4.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1) 주관적 안녕감의 정의

‘well-being(안녕)’이란 개념은 국가나 시대 및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안녕감’, ‘행복감’, ‘복지감’, ‘생활만족’, ‘삶의 질’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정의 또한 매우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subjective well-being’을 주관적 안녕감 및 주관적 행복감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과도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하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원대호, 2003: 재인용).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Campbell(1976)은 삶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경험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상태라고 하였으며, Szalai(1980)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개인이 여러 가지 생활상에서 느끼는 안녕감이나 행복감, 만족감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성격특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Diener(1984)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래도록 지속되는 안녕감이라 주장하였다. Veenhoven(1991)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정의 하였다.

국내 연구를 보면 조윤주(2006)는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험들에 대해 자신의 인지적 ·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수준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하였고, 또한 이주일 · 정지원 · 이정미(2006)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상태로서 자신의 삶과 노화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하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라 하

였다. 금기윤(2011)은 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높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긍정적 ·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태로 보았다. 이향란(2013)은 인지적인 측면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인 측면인 긍정적 · 부정적 정서의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내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다. 둘째,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할 경우 한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삶의 제반 요소나 측면에 대한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Brief, Butcher, George & Link, 1993).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well-being’이란 용어를 ‘행복감’, ‘안녕감’, ‘복지감’ 등으로 혼용함을 전제로 하고,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²⁾이란 현재 시점에서 노인 개개인이 자신의 전체 인생을 되돌아보아 삶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전반적인 수준을 긍정적 · 부정적인 정서를 포함한 통합적이며 주관적인 개인의 만족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2)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상향이론(bottom-up theory)과 하향이론(top-down theory)이 있다. 또한 노인 삶의 만족도 관련 이론으로는 은퇴이론(disengagement theory),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지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 노년문화 이론(subculture theory of aging), 연령계층화 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 등이 있다.(조성자, 2011).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주 다양한데, 대표적 외적요인으로는 가구소득과 같은 경제상태 및 신체기능과 같은 건강상태 등이 있으며, 내적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통제감 등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들 수가 있다. 이온수(2014)는 노년기 부부애착과 주관적 안녕감 연구에서 성별, 연령, 학력, 종교유무, 사회활동 유무, 가구소득, 건강 등의 7가지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보았다.

최생용(2013)은 노인의 이성교제 · 성이 고독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학력, 결혼상태, 동거가족, 건강상태, 경제상태, 월 용돈, 과거직업, 현재 직업, 거주지역, 소일장소 등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원대호(2003)는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및 성생활인식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종교, 동거가족, 교육수준,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처럼 노년기 파트너 즉 부부 및 이성교제 관련 친밀감과 성 관련 특성 등에 관한 연구들에서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동거가족, 건강상태, 경제상태, 결혼상태 등을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1) 성별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박연옥, 2011; 원대호, 2003)와 여성 노인이 높다는 연구(이온수, 2014; 조성자, 2011) 그리고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공수자, 2003; 손화정, 2008; 이예종, 2001; 이창은, 2000; 최생용, 2013; 황영원, 2006) 등으로 매우 다양한 보고들이 있다.

(2) 연령

공수자(2003)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한국형 모형 개발 연구에서 노인의 연령은 정서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노년기의 연령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진다는 연구(최생용, 2013)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연구(박충선, 1990) 그리고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박연옥, 2011; 손화정, 2008; 이온수, 2014; 이예종, 2001; 이창은, 2000; 원대호, 2003; 최두래, 2015; 홍숙자, 1992; 황영원, 2006) 등으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교육수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함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태현 외, 1998; 박연옥, 2011; 이온수, 2014; 원대호, 2003; 최생용, 2013)가 많다. 그러나 학력과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는 무관하다는 연구(이예종, 2001; 황영원, 2006)도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만큼 생활상의 기대감이 높아져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4) 동거가족

최두래(2015)의 연구에서 동거 가족과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거상태는 5점 만점에 부부동거가 3.31점, 부부 및 자녀와 동거가 3.29점, 기타가 3.04점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것 보다 부부동거

가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이는 황영원(2006)의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이 87.26점이고 노인 단독세대 81.03점인 경우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또한 노년기의 동거가족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 있어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손화정, 2008; 최생용, 2013)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예종, 2001)결과도 있다.

(5) 종교

이향란(2013)은 종교 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가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성공적인 노화 수준이 훨씬 높다고 하였고, 노인의 종교 참여는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하며 정서적 고립감을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노년기 종교를 갖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고승덕, 1995). 그러나 노년기의 종교 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온수, 2014; 이예종, 2001)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원대호, 2003; 최생용, 2013; 최두래, 2015; 황영원, 2006)는 연구 등의 다양한 결과가 있다.

(6) 건강상태

노년기에 주관적 안녕감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건강상태이다. 원대호(2003)는 건강상태에 따른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여부를 비교한 결과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보통이하'라고 응답한 노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년기에는 건강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결과(박연옥, 2011; 손화정, 2008; 이온수, 2014; 이예종, 2001; 원대호, 2003; 최두래, 2015; 최생용, 2013)와 함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황영원, 2006)도 있다.

(7) 경제수준

노년기에 있어 경제적인 안정은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여가활동을 가능케 하며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결과(공수자, 2003; 김유경, 2000; 김지훈, 1997; 권재숙, 2012; 박연옥, 2011; 박혜성, 2007; 박충선, 1990; 손화정, 2008; 윤에스더, 1999; 황영원, 2006; 최두래, 2015; 최생용, 2013; 홍숙자, 1992; Larson, 1978)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원대호(2003)와 이예중(2001)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또한 필요이상의 경제적인 수준은 주관적 안녕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태현 외, 1998)도 있다.

(8) 결혼상태(파트너 유형)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심리적으로도 쇠약해져 가며, 이로 인한 심리적 동요와 함께 다양한 변화가 많은 시기로 어느 때 보다 배우자가 필요한 시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러 연구들이 배우자 유무 또는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차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노년기 유배우자의 경우 다른 변인들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하였다. 물론 많은 연구들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다는 결과(공수자, 2003; 김영만, 2001; 김유경, 2000; 이향란, 2013; 정인숙, 2003; 최두래, 2015; 최생용, 2013)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홀로된 노인의 경우 이성 친구 유무를 노년기의 중요한 변인으로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고연희(2008)는 노인의 이성 교체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노인(2.77)이 하지 않는 노인(2.60)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현재 이성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김응갑, 2002; 박찬섭, 2002; 이예종, 2001; 정옥길, 2006; 최복란, 1996; 최생용, 2013 등)결과들이 많다. 또한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밝힌 이예종(2002)의 연구는 ‘이성교제를 하면서’ · ‘어려움을 적게 느낄수록’ · ‘이성과의 친밀감이나 애정 및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김응갑(2002)의 연구에서도 홀로된 노인들 중에서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노년기 파트너 친밀감 및 성 관련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

(1) 노년기 부부 및 이성친구 친밀감과 주관적 안녕감

친밀감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부부관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부부관계가 사랑을 받고 서로 수용하며, 동등한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원동력은 친밀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노년기 부부에게도 친밀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심창교, 2008). 또한 박연옥(2011)의 노년기 부부친밀감에 대한 연구결과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생활수준이 여유가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종교가 동일할수록, 침실을 같이 사용할수록, 성인자녀와의 결속력이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수(2014)의 연구 결과 노인의 부부애착 관계에서 부부불안애착과 부부회피애착이 높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의 친밀감 및 애착관

계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임주영 · 전귀연(2004)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부부관계와 자아존중감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지지나 교육을 통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더불어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와의 상실감 자체만으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김영만(2001)의 연구와 같이 대부분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 변인은 부부관계와 성인자녀관계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 변인은 사회적지지로 나타나, 이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타인과의 관계가 주관적 안녕감을 얻기에 더욱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임주영 · 전귀연, 2004).

한편 노년기 이성친구 및 이성교제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응갑, 2002; 이지은, 2015; 이예중, 2002; 원대호, 2003; 전차수, 1998; 최복란, 1996; 최정애, 2000 등). 뿐만 아니라 실제 노인 이성교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거나 현재 이성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볼 수가 있다(고연희, 2008; 김응갑, 2002; 박찬섭, 2002; 이예중, 2001; 정옥길, 2006; 최복란, 1996; 최생용, 2013 등).

또한 고연희(2008)는 노인의 이성 교제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의

하위항목 중에서 이성 교제를 하는 노인의 경우 자아존중감, 현실만족감, 자아성취감, 노화에 대한 태도 모두에서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정재필(2009)의 홀로된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성교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성친구와 친밀감이 높을수록, 소득정도가 높을수록,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이성친구와의 친밀감이 가장 높은 회귀계수값을 보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은(2015)의 연구에서는 실제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친밀감 조사의 결과 전체 친밀감 점수는 35점 만점에 13.6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문항별로 보면 ‘나의 삶에서 그(그녀)와의 관계는 소중한다’가 5점 만점에 평균 2.07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는 그(그녀)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정서적 · 경제적 지원과 격려를 한다’가 평균 1.8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노년기 이성 친구관계는 매우 소중한 관계이나 상호간에 정서적 · 경제적 지원은 미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홀로된 노인의 경우 이성친구 유무 및 이성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는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실제 노인들은 관계 형성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노년기 부부 및 이성친구의 성 관련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

김태현(1994)은 성이란 자연스러운 일이며, 성의 문제는 인간 본능의 차원으로 노년기 부부관계에서도 성적인 조화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행복하고 안녕된 노년의 성을 위해서는 신체적 · 심리적 변화에 따른 부

부간의 성적 조화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김주희 · 이창은, 2000 재인용). 또한 노년기의 성적활동은 서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며, 연대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기효능감 등의 만족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태현 등, 1996).

노년기의 성생활 인식도에 대한 신지원(2014)의 연구에 의하면 노년의 성 인식이란 과거의 성생활 경험을 통하여 현재 갖게 된 성 욕구나 성 태도, 성 중요도 등의 성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주관적인 견해로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홍란(2004)의 연구에서는 과거 젊은 시절 부부간 또는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성생활 경험 및 실태에 따라 노년기의 긍정적인 성태도 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과거 부부간의 성생활 빈도가 높을수록 노년기에 긍정적인 성 태도를 보였고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현숙(2015)은 노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성 인식 또는 성교육 수요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 성 인식 특성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분석 결과 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위요인 중에서 성 욕구와 성 중요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성 태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희 · 이창은(2000)의 연구 결과에서 유배우자인 노인의 경우 4점 만점에 성 욕구 평균은 2.60점, 성 태도 2.52점, 성 중요도 2.36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관련 특성에 따른 성 인식에 대한 차이에서, 노인의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 모두 노화와 함께 성생활의 변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성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서 성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성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성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연희(2008)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는 노인(2.97)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노인(2.41)보다 성 인식도가 높았고, 세부적인 하위항목 수준은 이성교제를 하는 노인의 경우 성 태도(3.03), 성 욕구(2.94), 성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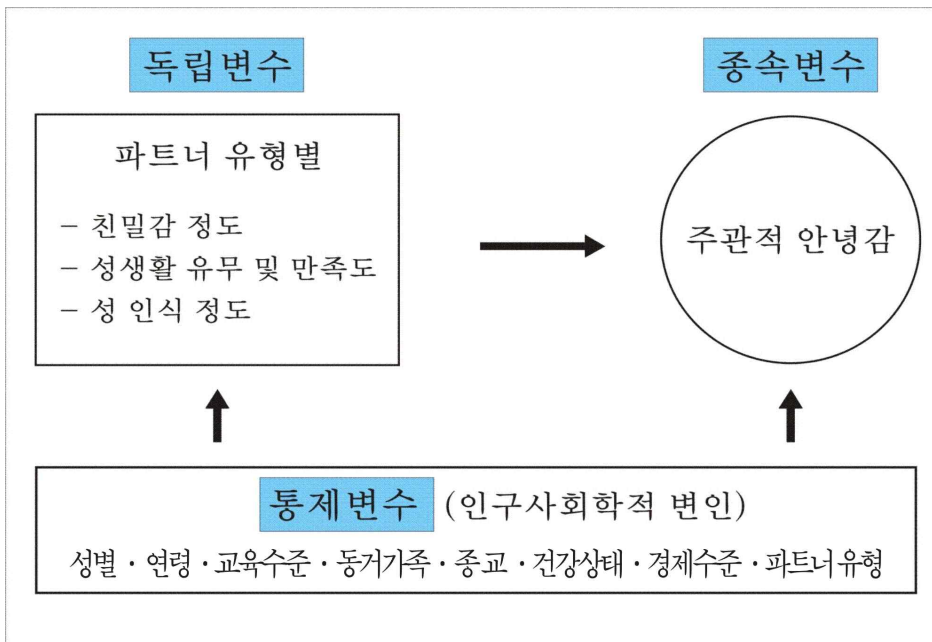
(2.94) 모두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에는 성 태도(2.45), 성 욕구(2.42), 성 중요도(2.35)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유수경(2003)의 독신 노인대상 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에 대한 성 인식도 조사에서 전체 평균은 2.30(남성 노인 2.56, 여성노인 1.96)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두래(2015)의 남성노인의 성 인식도가 성 욕구 대처행동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부부가 함께 동거할수록,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노년기 성 인식 즉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또는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결과(고연희, 2008; 박용석, 2006; 서명선, 2002; 유수경, 2003; 양연심, 2008; 윤재실, 2010; 이미라, 2009; 최두래, 2014 등)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 욕구와 성 태도 및 성 중요도 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 하위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창은, 2000; 원대호, 2003)도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비롯하여 김홍란(2004)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중 경제적 요인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노인의 성이 건강과 삶의 질 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능동적인 성생활 및 부부 또는 이성 친구와의 친밀감이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곽영수(1993)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년기 이성 파트너와의 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3-1>과 같다.



<그림3-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노년기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3.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무엇인가?
4.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및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트너 관계 및 유형

파트너(partner)란 서로 짝이 되어 함께하는 상대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 관계를 심리적 · 정서적 친밀감을 함께 공유하며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대와의 관계로 정의하며, 유형은 부부 관계와 이성친구 관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2) 이성친구 관계

노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상이하고 이성 친구 · 연인 · 애인 등의 다각적인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기에 노년기 이성교제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란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단순한 친구로 말벗을 하는 정도는 물론 스킨십과 성적인 행위까지 이어지는 성이 다른 이성간의 친구관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노년기 파트너 친밀감

(1) 노년기 부부 친밀감

부부 친밀감(intimacy) 형성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부부관계 즉, 부부간에 상호성장을 추구하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으로 부부가 아닌 다른 가족원들 간의 친밀감과 달리 애정이나 헌신과 함께 성적친밀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노년기 이성친구 친밀감

인간은 어려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 · 발전시키게 되므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노년기 이성친구 친밀감을 홀로된 노인들이 이성을 통해 배우자의 상실감을 완화시켜 주고 소외감이나 우울감을 감소시킴에 도움이 되는 성숙한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노년기 이성간 우정은 비록 성적인 요소나 실질적 보살핌이 없더라도 거의 배우자와 같은 애착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이나 안녕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노년기 성 인식도

(1) 노년기 성 욕구

성이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본능적인 욕구로 이러한 욕구 충족을 통하여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아실현토록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록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노년기에도 이러한 성적욕구는 식욕이나 휴식 욕구와 같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1차적 욕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노년기 성 태도

성 태도란 성에 대한 가치나 신념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성 행동을 지배하는 주요한 요소로, 개인이 속한 문화적 산물과 사회화의 결과에 따라 형성된 성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자세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노년기 성 중요도

본 연구에서 노년기 성 중요도란 단지 육체적인 성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전체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노년기 부부 및 이성친구 관계를 통하여 안녕감을 얻게 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5)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well-being'이란 용어를 '행복감', '안녕감', '복지감' 등으로 혼용함을 전제로 하고,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란 현재 시점에서 노인 개개인이 자신의 전체 인생을 되돌아보아 삶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전반적인 수준을 긍정적 · 부정적인 정서를 포함한 통합적이며 주관적인 개인의 만족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소재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만60세 이상³⁾의 한글 해독이 가능한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기관별 각 100명씩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서울 7개 · 충청북도 5개 기관으로 할당하여 전체 1,2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4-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2.3%, ‘여자’가 57.7%이었으며, 연령은 ‘70-79세’가 55.4%, ‘69세 이하’가 27.3%, ‘80세 이상’이 17.3%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 50.7%, ‘초등학교 이하’ 27.3%, ‘전문대학 이상’ 22.0%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거가족은 ‘노인세대’가 74.0%로 가장 많았고, ‘무배우 가족동거세대’는 15.6%, ‘유배우 가족동거세대’는 9.4%, ‘기타’는 1.0%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는 72.1%,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27.9%이었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46.9%, ‘좋다’ 36.5%, ‘좋지않다’ 16.6%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은 ‘보통’ 59.6%, ‘하’ 26.7%, ‘상’ 13.7%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이용가능 연령인 만60세 이상으로 정함

<표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044)

	구 분	n(%)
성 별	남자	442(42.3)
	여자	602(57.7)
연 령	69세 이하	285(27.3)
	70-79세	578(55.4)
	80세 이상	181(17.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85(27.3)
	중고등학교	529(50.7)
	전문대학 이상	230(22.0)
동거가족	노인세대	773(74.0)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163(15.6)
	유배우 가족동거세대	98(9.4)
	기타	10(1.0)
종 교	무	291(27.9)
	유	753(72.1)
건강상태	좋지않다	173(16.6)
	보통이다	490(46.9)
	좋다	381(36.5)
경제수준	하	279(26.7)
	보통	622(59.6)
	상	143(13.7)

(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를 살펴본 결과는 <표4-2>와 같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58.0%,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42.0%이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이유로는 ‘사별’이 79.0%로 가장 많았고, ‘이혼’이 15.5%, ‘미혼’이 2.3%이었으며, ‘기타’는 3.2%이었다. 배우자가 없는 기간은 ‘11-20년’이 26.5%, ‘5년 이하’와 ‘6-10년’이 각각 21.1%, ‘21-30년’이 20.4%, ‘31년 이상’이 10.8% 순으로 나타났다.

<표4-2> 배우자 유무

(N=1044)

		구 분	n(%)
배우자 유무		없음	438(42.0)
		있음	606(58.0)
배우자 유무 이유 (n=438)		사별	346(79.0)
		이혼	68(15.5)
		미혼	10(2.3)
		기타	14(3.2)
배우자 유무 기간 (n=407)		5년 이하	86(21.1)
		6-10년	86(21.1)
		11-20년	108(26.5)
		21-30년	83(20.4)
		31년 이상	44(10.8)

(3) 이성친구 유무

이성친구 유무를 살펴본 결과는 <표4-3>과 같다.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는 24.7%, 이성친구가 없는 응답자는 75.3%이었으며, 이성친구가 없는 이유로는 ‘흥미를 느끼지 않아서’가 42.4%, ‘외롭지 않으므로’가 32.4%, ‘자녀나 친지의 이목 때문에’가 10.9%, ‘기타’ 10.6%, ‘배우자에게 충실하기 위해’와 ‘성적불만이 없으므로’는 각각 1.8%이었다. 이성친구가 없는 기간으로는 ‘11-20년’이 27.6%, ‘5년 이하’가 24.6%, ‘6-10년’이 21.9%, ‘21-30년’이 13.1%, ‘31년 이상’이 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4-3> 이성친구 유무

(N=438)

		구 분	n(%)
이성친구 유무		없음	330(75.3)
		있음	108(24.7)
이성친구 무	이유 (n=330)	외롭지 않으므로	107(32.4)
		흥미를 느끼지 않아서	140(42.4)
		자녀나 친지의 이목 때문에	36(10.9)
		배우자에게 충실하기 위해	6(1.8)
		성적불만이 없으므로	6(1.8)
		기타	35(10.6)
		기간 (n=297)	5년 이하
	6-10년	65(21.9)	
	11-20년	82(27.6)	
	21-30년	39(13.1)	
	31년 이상	38(12.8)	

2) 자료수집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감과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 조사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6년 9월 13일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노래교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에 강사 및 이용 어르신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시간을 할애 받은 후에 전체 이용자 95명 중 조사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5명의 도움에 의해 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회수된 총 65부중 52부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21.0을 활용한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Cronbachs α 는 .80 이상)를 보였다. 그러나 무응답 비율을 줄이고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기존 척도의 문항수가 너무 많거나 중복 문항 및 역문항 등을 삭제 및 수정 보완 하였다. 특히 문항별 5점 척도를 ①부터 ⑤까지의 번호를 대신하여 ‘아주 그럼’부터 ‘전혀 아님’으로 수정하여 읽고 나서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더불어 이성교제나 성생활과 같은 예민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성상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조사기간

동안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들에게 공문발송 및 사전 협조 요청을 통해 조사를 승낙한 10개 노인복지관, 2개 시니어클럽⁴⁾ 등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200부의 설문지를 서울특별시 700부와 충청북도 500부로 임의할당 하여 조사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700부는 본 연구자와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석사학위 이상 중간관리자) 3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11명이 일정별로 각 기관별 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충청북도 500부는 본 연구자가 복지관장 모임을 통해 사전 승낙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석사학위 이상 중간관리자) 3명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실시하였다. 전체 회수된 1,179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135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1,044부(87.0%)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년기 파트너 유형에 따른 친밀감과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적합한 연구도구를 만들기 위해 변수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내용 및 신뢰도 등 전반적인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적절치 못한 문항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였고, 중복문항들은 삭제하여 다음 <표4-4>와 같이 변수별로 최종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전체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와 각 변수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4) 노인복지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이용자들을 표본에 넣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지역별 1개 기관씩을 포함시킴.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주관적 안녕감 측정을 위한 척도로는 Stones와 Kozma(1980)가 개발한 행복척도인 MUNSH(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영향 유형(PA: positive effect-type) 5문항, 부정영향 유형(NA: negative effect-type) 5문항, 긍정경험 유형(PE: positive experience-type) 7문항, 부정경험 유형(NE: negative experience-type) 7문항의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혜경(1998)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Cronbachs $\alpha = .90$)를 중심으로, 김경호(2004)의 연구(Cronbachs α 는 긍정적 안녕감 = .83, 부정적 안녕감 = .85) 그리고 최생용(2013)의 연구(Cronbachs $\alpha = .84$)와 이온수(2014)의 연구(Cronbachs $\alpha = .89$) 등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동일한 내용 및 중복 문항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였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문 내용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문항⁵⁾ 총 8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수정하여 최종 사용하였다.

그 결과 최종 결정된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각 유형 즉, 긍정경험 유형(PE: 1-4번 문항), 긍정영향 유형(PA: 5-8번 문항), 부정영향 유형(NA: 9-12번 문항), 부정경험 유형(NE: 13-16번 문항)별로 4문항씩으로 구성하였고, 아울러 이를 긍정적 질문 8문항(1-8번)과 부정적 질문 8문항(9-16번)으로 하는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로는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점수 부여 원칙은 긍정적 질문문항에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5점, ‘전혀 아니다’

5) [내용 중복 및 동일 문항의 예] - 「나는 대체로 내 인생에 대해 만족한다。」와 「나는 대체로 나의 삶에 만족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인생에 만족한다.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매우 만족스럽다。」 등은 내용이 중복된 문항이고, 「나는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동일한 문항이 2개이므로 삭제함.

는 1점 그리고 부정적 질문문항에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 ‘전혀 아니다’는 5점, 또한 긍정적 문항이든 부정적 문항이든 ‘보통이다’는 3점을 부여하여 척도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배우자 또는 이성친구 즉 파트너 유형별로 파트너와의 친밀감 정도와 성 관련 특성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1) 친밀감 척도

본 연구의 친밀감 척도로는 조황숙(2000)의 여자 노인 자매 관계의 질적 특성 척도⁶⁾ 및 이정애(199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만든 이예중(2001)의 10 문항 척도(Cronbachs $\alpha = .95$) 그리고 이를 참고로 하여 서로 관련 있는 문항을 묶은 정재필(2009)의 7문항 척도(Cronbachs $\alpha = .74$)와 최생용(2013)의 7문항 척도(Cronbachs $\alpha = .95$) 등을 전문가 자문으로 비교 분석 및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의 “그(그녀)” 부분을 응답대상에 따라 ‘배우자(이성 친구)’로 변경한 전체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배우자 친밀도= .86, 이성친구 친밀도=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6) Miller & Lefcourt(1982)가 작성한 것을 Wilson, Jane Gordon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자매 간 느끼는 긍정적 느낌과 지지감 그리고 애정적으로 구성된 친밀감 척도 MSIS(The Miller Social Intimacy Scale)를 참고하여 변안 사용함.

(2) 성 관련 척도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는 김주희 · 이창은 (2000)이 사용한 노인의 성 욕구 4문항, 성 태도 3문항, 성 중요도 3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Cronbachs α 는 성 욕구= .88, 성 태도= .70, 성 중요도= .83)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결과(부록 1 참조) ‘성생활은 노년기에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문항은 성 태도보다는 성 중요도와 가까운 요인으로 나타났고, ‘노년기에도 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문항은 성 욕구보다는 성 태도와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인의 성 욕구 3문항, 성 태도 3문항, 성의 중요도 4문항으로 구분한 전체 10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성 욕구= .85, 성 태도= .86, 성 중요도=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 파트너와의 친밀도 및 성 인식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모두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점수 부여 원칙은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 모두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5점, ‘전혀 아니다’는 1점을 부여하고, ‘보통이다’는 3점을 부여하여 척도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파트너와의 친밀도 및 성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예민한 질문인 성생활 척도로는 현재 배우자와의 성생활 여부 및 만족도를 묻는 문항과는 별도 구분하여, 현재 이성친구 파트너와의 성생활 여부 및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둘 중 하나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동거가족,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4-4> 변수별 설문 구성 및 신뢰도

변수별 및 측정요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종속 변수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질문	8	.90	
		부정적 질문	8		
독립 변수	파트너와의 친밀도	배우자 친밀도	7	.86	
		이성친구 친밀도		.85	
	성 관련 특성	파트너와의 성생활		2	-
		성 인식도	성 욕구	3	.85
			성 태도	3	.86
			성 중요도	4	.92
			성 인식도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동거가족, 종교, 건강상태 경제수준 등	8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트너 유무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파트너 친밀도, 성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성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χ^2 검증과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통하여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4)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도, 성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통하여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5)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및 성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연구문제1. 노년기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1. 노년기 친밀도

노년기 배우자 친밀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5-1>과 같다. 배우자 친밀도 전체의 평균은 3.63으로, ‘나의 삶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소중하다.’(M=4.05), ‘배우자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M=3.97), ‘나는 배우자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정서적 격려 및 경제적 지원을 한다.’(M=3.87),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M=3.56), ‘나는 배우자에게 사적인 비밀을 털어놓는다.’(M=3.43), ‘나는 배우자에게서 자주 애정을 느낀다.’(M=3.31), ‘나는 배우자와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다.’(M=3.19) 순으로 배우자에 대한 친밀도가 높았다.

<표5-1> 배우자 친밀도 (N=606)

구 분	Mean	(±)SD
나의 삶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소중하다.	4.05	.86
배우자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97	.78
나는 배우자와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다.	3.19	.99
나는 배우자에게서 자주 애정을 느낀다.	3.31	.92
나는 배우자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정서적 격려 및 경제적 지원을 한다.	3.87	.94
나는 배우자에게 사적인 비밀을 털어놓는다.	3.43	.99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3.56	.95
배우자 친밀도	3.63	.67

노년기 이성친구 친밀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5-2>와 같다. 이성친구 친밀도 전체의 평균은 3.63으로, ‘나의 삶에서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다.’(M=3.90), ‘이성친구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M=3.82), ‘나는 이성친구에게서 자주 애정을 느낀다.’(M=3.66), ‘나는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M=3.64), ‘나는 이성친구와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다.’(M=3.49), ‘나는 이성친구에게 사적인 비밀을 털어놓는다.’(M=3.49), ‘나는 이성친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정서적 격려 및 경제적 지원을 한다.’(M=3.44) 순으로 이성친구에 대한 친밀도가 높았다.

<표5-2> 이성친구 친밀도

(N=108)

구 분		Mean	(±)SD
이 성 친 구 친 밀 도	나의 삶에서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다.	3.90	.80
	이성친구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82	.67
	나는 이성친구와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다.	3.49	.87
	나는 이성친구에게서 자주 애정을 느낀다.	3.66	.93
	나는 이성친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정서적 격려 및 경제적 지원을 한다.	3.44	.83
	나는 이성친구에게 사적인 비밀을 털어놓는다.	3.49	.88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3.64	.98
이성친구 친밀도		3.63	.62

1-2. 성 관련 특성

1-2-1. 성 인식도

노년기 성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5-3>과 같다. 성 인식도 전체의 평균은 2.57로, ‘성 태도’(M=2.65), ‘성 중요도’(M=2.60), ‘성 욕구’(M=2.46) 순으로 성 인식도가 높았다. 노년기 성 인식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성 욕구는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항상 성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M=2.79), ‘배우자가 없더라도 성생활을 하고 싶다.’(M=2.38), ‘요즘 많은 성 기구나 정력제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M=2.22) 순으로 높았으며, 성 태도는 ‘노년기에도 성적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자주해야 한다.’(M=2.67), ‘노년기에도 성생활에 대해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M=2.66), ‘노년기에도 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는다.’(M=2.61) 순으로 높았고, 성 중요도는 ‘성생활은 노년기에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M=2.80), ‘성생활은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M=2.64), ‘노년기에도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힘들다.’(M=2.61), ‘성생활을 못하면 살맛도 없고 의욕도 없다.’(M=2.3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3> 성 인식도

(N=1044)

구 분		Mean	(±)SD
성 욕 구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항상 성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	2.79	1.13
	요즘 많은 성 기구나 정력제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2.22	1.02
	배우자가 없더라도 성생활을 하고 싶다.	2.38	1.09
성 욕구		2.46	.95
성 태 도	노년기에도 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2.61	1.16
	노년기에도 성생활에 대해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2.66	1.13
	노년기에도 성적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자주 해야 한다.	2.67	1.11
성 태도		2.65	1.00
성 중 요 도	성생활은 노년기에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2.80	1.16
	노년기에도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힘들다.	2.61	1.11
	성생활을 못하면 살맛도 없고 의욕도 없다.	2.37	1.07
	성생활은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2.64	1.14
성 중요도		2.60	1.00
성 인식도		2.57	.92

1-2-2.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 만족도

노년기 배우자와의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5-4>와 같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들 중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는 43.2% 이었고,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 51.1%, ‘만족한다’ 32.8%, ‘만족하지 않는다’ 6.9%, ‘매우 만족한다’ 5.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2% 순으로 성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7.8%이었다.

<표5-4> 배우자와의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 만족도 (N=606)

		구 분	n(%)
	성생활 유무	안한다	344(56.8)
		한다	262(43.2)
배우자 유	성생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1(4.2)
		만족하지 않는다	18(6.9)
		보통이다	134(51.1)
		만족한다	86(32.8)
		매우 만족한다	13(5.0)

노년기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5-5>와 같다.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들 중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는 68.5%이었고,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45.9%, ‘매우 만족한다’ 32.4%, ‘보통이다’ 16.2%, ‘만족하지 않는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각각 2.7% 순으로 성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8.3%로 매우 높았다.

<표5-5>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 만족도

(N=108)

		구 분	n(%)
이 성 친 구	성생활 유무	안한다	34(31.5)
		한다	74(68.5)
유	성생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2.7)
		만족하지 않는다	2(2.7)
		보통이다	12(16.2)
		만족한다	34(45.9)
		매우 만족한다	24(32.4)

1-3. 주관적 안녕감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본 결과는 <표5-6>과 같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의 평균은 3.46으로, ‘나는 현재 매우 우울하며 불행하다.(+)’(M=3.75), ‘나는 매우 외롭고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낀다.(+)’(M=3.70),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기 원한다.’(M=3.70), ‘나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힘이 든다.(+)’(M=3.62), ‘나는 요즘 사소한 일들로 괴롭다.(+)’(M=3.57), ‘나는 일상 생활의 대부분이 지루하거나 따분하다.(+)’(M=3.49), ‘나는 대체로 내 인생에 대해 만족한다.’(M=3.47), ‘나는 대체로 외로움을 느낀다.(+)’(M=3.43), ‘나는 대체로 기분 좋은 날이 많다.’(M=3.40), ‘내 건강은 내 연령층의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더 좋다.’(M=3.39), ‘나의 인생길은 대체로 험난했다.(+)’(M=3.39), ‘나는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주관적 안녕감을 느낀다.’(M=3.36),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체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M=3.35), ‘나는 살아오면서 대체로 운이 좋은 편이었다.’(M=3.31),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나의 모든 상황들이 나빠지고 있다.(+)’(M=3.27), ‘세상은 온통 나를 위해 있는 것 같다.’(M=3.08)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5-6> 주관적 안녕감

(N=1044)

구 분	Mean	(±)SD
세상은 온통 나를 위해 있는 것 같다.	3.08	.84
나는 대체로 기분 좋은 날이 많다.	3.40	.76
나는 살아오면서 대체로 운이 좋은 편이었다.	3.31	.81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체로 의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3.35	.88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기 원한다.	3.70	.91
나는 대체로 내 인생에 대해 만족한다.	3.47	.85
주 나는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행복감을 느낀다.	3.36	.91
관 내 건강은 내 연령층의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더 좋다.	3.39	.90
적 나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지루하거나 따분하다.(+)	3.49	.89
안 나는 현재 매우 우울하며 불행하다.(+)	3.75	.95
녕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나의 모든 상황들이 나빠지고 있다.(+)	3.27	.95
감 나는 대체로 외로움을 느낀다.(+)	3.43	.98
나는 요즘 사소한 일들로 괴롭다.(+)	3.57	.92
나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힘이 든다.(+)	3.62	.93
나는 매우 외롭고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낀다.(+)	3.70	.85
나의 인생길은 대체로 험난했다.(+)	3.39	.97
주관적 안녕감	3.46	.56

(+)역코딩

연구문제2.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의 차이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7>과 같다. 파트너가 있는 응답자의 친밀도는 이성친구(M=3.63)와의 친밀도와 배우자(M=3.63)와의 친밀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7>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의 차이 (N=714)

구 분	이성친구 (n=108)		배우자 (n=606)		t	p
	Mean	(±)SD	Mean	(±)SD		
친밀도	3.63	.62	3.63	.67	.080	.936

2-2.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 관련 특성의 차이

2-2-1.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 인식도의 차이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 인식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8>과 같다. 성 인식도의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 모두 파트너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성 인식도는 이성친구(M=3.27), 배우자(M=2.70), 파트너 없음(M=2.12) 순으로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성 인식도가 가장 높고, 파트너가 없는 응답자의 성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89.673, p<.001). 세부적으로, 성 인식도의 성 욕구(F=80.497, p<.001), 성 태도(F=69.635, p<.001), 성 중요도(F=79.485, p<.001) 모두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가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 모두 가장 높았다.

<표5-8> 파트너 유형별 성 인식도의 차이 (N=1044)

구 분	없음(a) (n=330)		이성친구(b) (n=108)		배우자(c) (n=606)		F	p	Scheff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성 인식도	성 욕구	2.03 .85	3.20 .96	2.57 .89	80.497***	.000	b>c>a		
	성 태도	2.18 .92	3.26 .96	2.79 .95	69.635***	.000	b>c>a		
	성 중요도	2.14 .91	3.34 .93	2.73 .95	79.485***	.000	b>c>a		
성 인식도	2.12 .83	3.27 .89	2.70 .86	89.673***	.000	b>c>a			

*** p<.001

2-2-2.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유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9>와 같다. 성생활 유무는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한다’가 68.5%로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안한다’가 56.8%로 높게 나타났다($\chi^2=23.521$, $p<.001$).

<표5-9>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유무의 차이 (N=714)

구 분	이성친구	배우자	계	$\chi^2(p)$	
	n(%)	n(%)	n(%)		
성생활	안한다	34(31.5)	344(56.8)	378(52.9)	23.521*** (.000)
	한다	74(68.5)	262(43.2)	336(47.1)	
합계	108(100.0)	606(100.0)			

*** p<.001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10>과 같다. 성생활을 하는 파트너가 있는 응답자의 성생활 만족도는 이성친구(M=4.03)와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가 배우자(M=3.27)와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보다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711, p<.001).

<표5-10>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 (N=336)

구 분	이성친구 (n=74)		배우자 (n=262)		t	p
	Mean	(±)SD	Mean	(±)SD		
성생활 만족도	4.03	.92	3.27	.83	6.711***	.000

*** p<.001

2-3.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11>과 같다. 주관적 안녕감은 이성친구(M=3.60), 배우자(M=3.50), 파트너 없음(M=3.32) 순으로 파트너가 없는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6.641, p<.001).

<표5-11> 파트너 유형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N=1044)

구 분	없음(a) (n=330)		이성친구(b) (n=108)		배우자(c) (n=606)		F	p	Scheffe
	Mean	(±)SD	Mean	(±)SD	Mean	(±)SD			
주관적 안녕감	3.32	.58	3.60	.65	3.50	.52	16.641***	.000	b,c>a

*** p<.001

연구문제3.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파트너 친밀도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년기 배우자 친밀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1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과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배우자 친밀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연령, 교육수준, 동거가족,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성별은 남자(M=3.77)가 여자(M=3.47)보다 배우자 친밀도가 더 높았고($t=5.616$, $p<.001$), 건강상태는 좋다(M=3.81), 보통이다(M=3.52), 좋지않다(M=3.50) 순으로 배우자 친밀도의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건강상태가 좋은 응답자의 배우자 친밀도가 가장 높았다($F=14.706$, $p<.001$). 경제수준은 상(M=3.85), 보통(M=3.63), 하(M=3.46) 순으로 배우자 친밀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이 상으로 부유한 응답자의 배우자 친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704$, $p<.001$).

<표5-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친밀도의 차이

(N=606)

	구 분	n	Mean	(±)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312	3.77	.57	5.616***	.000	-
	여자	294	3.47	.74			
연령	69세 이하	206	3.63	.67	.416	.660	-
	70-79세	330	3.62	.67			
	80세 이상	70	3.70	.7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22	3.53	.78	1.793	.167	-
	중고등학교	308	3.67	.65			
	전문대학 이상	176	3.63	.64			
동거가족	노인세대	483	3.65	.68	1.916	.126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23	3.39	.64			
	유배우 가족동거세대	93	3.54	.67			
	기타	7	3.82	.21			
종교유무	무	190	3.58	.70	-1.193	.233	-
	유	416	3.65	.66			
건강상태	좋지않다 (a)	88	3.50	.70	14.706***	.000	c>b,a
	보통이다 (b)	289	3.52	.67			
	좋다 (c)	229	3.81	.63			
경제수준	하 (a)	123	3.46	.79	8.704***	.000	c>b,a
	보통 (b)	397	3.63	.65			
	상 (c)	86	3.85	.54			

*** p<.001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친구 친밀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13>과 같다. 응답자의 동거가족과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이성친구 친밀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동거가족은 노인세대(M=3.51)보다 무배우 가족동거세대(M=3.80)의 이성친구

친밀도가 더 높았으며($t=-2.476$, $p<.05$), 건강상태는 좋다($M=3.78$), 좋지않다($M=3.60$), 보통이다($M=3.35$) 순으로 이성친구 친밀도의 차이가 있었으나($F=5.674$, $p<.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그룹 간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제수준은 상($M=4.00$), 보통($M=3.59$), 하($M=3.29$) 순으로 배우자 친밀도가 높았고,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이 상으로 부유한 응답자의 이성친구 친밀도가 가장 높았다($F=11.521$, $p<.001$).

<표5-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친구 친밀도의 차이

(N=108)

구 분	n	Mean	(±)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57	3.72	.53	1.527	.130	-
	여자	51	3.54	.70			
연령	69세 이하	27	3.76	.53	.896	.411	-
	70-79세	73	3.61	.66			
	80세 이상	8	3.46	.4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7	3.40	.75	2.842	.063	-
	중고등학교	65	3.61	.64			
	전문대학 이상	26	3.85	.40			
동거가족	노인세대	62	3.51	.69	-2.476*	.015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46	3.80	.46			
종교유무	무	21	3.50	.68	-1.129	.262	-
	유	87	3.67	.60			
건강상태	좋지않다 (a)	11	3.60	.49	5.674**	.005	-
	보통이다 (b)	32	3.35	.55			
	좋다 (c)	65	3.78	.63			
경제수준	하 (a)	26	3.29	.73	11.521***	.000	c>b,a
	보통 (b)	51	3.59	.59			
	상 (c)	31	4.00	.33			

* $p<.05$, ** $p<.01$, *** $p<.001$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관련 특성의 차이

3-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인식도의 차이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인식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14>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 인식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성별은 남성(M=3.12)이 여성(M=2.17)보다 성 인식도가 더 높았고($t=19.042$, $p<.001$), 연령은 69세 이하(M=2.64), 70-79세(M=2.60), 80세 이상(M=2.39) 순으로 성 인식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80세 이상의 성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4.858$, $p<.01$).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이상(M=2.83), 중고등학교(M=2.65), 초등학교 이하(M=2.23) 순으로 성 인식도의 차이가 있었고,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전문대학 이상인 학력자의 성 인식도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성 인식도가 가장 낮았다($F=33.149$, $p<.001$). 종교는 종교가 없는 응답자(M=2.67)가 종교가 있는 응답자(M=2.54)보다 성 인식도가 더 높았고($t=2.057$, $p<.05$), 건강상태는 좋다(M=2.86), 좋지않다(M=2.43), 보통이다(M=2.40) 순으로 성 인식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건강상태가 좋은 응답자의 성 인식도가 가장 높았다($F=29.965$, $p<.001$).

경제수준은 상(M=3.00), 보통(M=2.53), 하(M=2.45) 순으로 성 인식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이 상으로 부유한 응답자의 성 인식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9.194$, $p<.001$).

<표5-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인식도의 차이 (N=1044)

	구 분	n	Mean	(±)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442	3.12	.79	19.042***	.000	-
	여자	602	2.17	.80			
연령	69세 이하 (a)	285	2.64	.90	4.858**	.008	a,b>c
	70-79세 (b)	578	2.60	.93			
	80세 이상 (c)	181	2.39	.9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a)	285	2.23	.83	33.149***	.000	c>b>a
	중고등학교 (b)	529	2.65	.94			
	전문대학 이상 (c)	230	2.83	.86			
동거가족	노인세대	773	2.57	.91	.378	.769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163	2.56	1.00			
	유배우 가족동거세대	98	2.57	.87			
	기타	10	2.88	1.04			
종교유무	무	291	2.67	.93	2.057*	.040	-
	유	753	2.54	.92			
건강상태	좋지않다 (a)	173	2.43	.81	29.965***	.000	c>a,b
	보통이다 (b)	490	2.40	.88			
	좋다 (c)	381	2.86	.96			
경제수준	하 (a)	279	2.45	.90	19.194***	.000	c>b,a
	보통 (b)	622	2.53	.87			
	상 (c)	143	3.00	1.05			

* p<.05, ** p<.01, *** p<.001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욕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15>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 욕구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성별은 남성(M=3.02)이 여성(M=2.05)보다 성 욕구가 더 높았고(t=18.504, p<.001), 연령은 69세 이하(M=2.51), 70-79세(M=2.50), 80세 이상(M=2.28) 순으로 성 욕구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80세 이상의 성 욕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4.195, p<.05).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이상(M=2.74), 중고등학교(M=2.52), 초등학교 이하(M=2.13) 순으로 성 욕구의

차이가 있었고,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전문대학 이상인 학력자의 성 욕구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성 욕구가 가장 낮았다(F=30.386, p<.001). 건강상태는 좋다(M=2.73), 좋지않다(M=2.35), 보통이다(M=2.29) 순으로 성 욕구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건강상태가 좋은 응답자의 성 욕구가 가장 높았고(F=24.835, p<.001), 경제수준은 상(M=2.96), 보통(M=2.41), 하(M=2.32) 순으로 성 욕구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이 상으로 부유한 응답자의 성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4.519, p<.001).

<표5-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욕구의 차이 (N=1044)

구분	n	Mean	(±)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442	3.02	.85	18.504***	.000	-
	여자	602	2.05	.80			
연령	69세 이하 (a)	285	2.51	.94	4.195*	.015	a,b>c
	70-79세 (b)	578	2.50	.97			
	80세 이상 (c)	181	2.28	.9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a)	285	2.13	.85	30.386***	.000	c>b>a
	중고등학교 (b)	529	2.52	.95			
	전문대학 이상 (c)	230	2.74	.97			
동거가족	노인세대	773	2.46	.93	.054	.983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163	2.46	1.07			
	유배우 가족동거세대	98	2.48	.92			
	기타	10	2.57	1.09			
종교유무	무	291	2.53	.93	1.344	.179	-
	유	753	2.44	.96			
건강상태	좋지않다 (a)	173	2.35	.83	24.835***	.000	c>a,b
	보통이다 (b)	490	2.29	.92			
	좋다 (c)	381	2.73	.99			
경제수준	하 (a)	279	2.32	.91	24.519***	.000	c>b,a
	보통 (b)	622	2.41	.90			
	상 (c)	143	2.96	1.10			

* p<.05, ***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16>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은 남성(M=3.20)이 여성(M=2.24)보다 성 태도가 더 높았고($t=17.270$, $p<.001$), 연령은 69세 이하(M=2.77), 70-79세(M=2.64), 80세 이상(M=2.46) 순으로 성 태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69세 이하의 성 태도가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의 성 태도가 가장 낮았다($F=5.644$, $p<.01$).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이상(M=2.93), 중고등학교(M=2.73), 초등학교 이하(M=2.27) 순으로 성 태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전문대학 이상인 학력자의 성 태도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성 태도가 가장 낮았다($F=32.682$, $p<.001$).

건강상태는 좋다(M=2.96), 보통이다(M=2.47), 좋지않다(M=2.47) 순으로 성 태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건강상태가 좋은 응답자의 성 태도가 가장 높았고($F=30.184$, $p<.001$), 경제수준은 상(M=3.08), 보통(M=2.60), 하(M=2.52) 순으로 성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이 상으로 부유한 응답자의 성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6.769$, $p<.001$).

<표5-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

(N=1044)

구분	n	Mean	(±)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442	3.20	.84	17.270***	.000	-
	여자	602	2.24	.91			
연령	69세 이하 (a)	285	2.77	.99	5.644**	.004	a,b>b,c
	70-79세 (b)	578	2.64	1.00			
	80세 이상 (c)	181	2.46	.9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a)	285	2.27	.91	32.682***	.000	c>b>a
	중고등학교 (b)	529	2.73	1.04			
	전문대학 이상 (c)	230	2.93	.89			
동거가족	노인세대	773	2.65	.99	.764	.515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163	2.59	1.03			
	유배우 가족동거세대	98	2.70	.98			
	기타	10	3.03	1.20			
종교 유무	무	291	2.73	1.02	1.665	.096	-
	유	753	2.61	.99			
건강상태	좋지않다 (a)	173	2.47	.86	30.184***	.000	c>b,a
	보통이다 (b)	490	2.47	.95			
	좋다 (c)	381	2.96	1.05			
경제수준	하 (a)	279	2.52	.96	16.769***	.000	c>b,a
	보통 (b)	622	2.60	.96			
	상 (c)	143	3.08	1.11			

** p<.01, ***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17>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 중요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성별은 남성(M=3.14)이 여성(M=2.21)보다 성의 중요도가 더 높았고($t=16.571$, $p<.001$), 연령은 69세 이하(M=2.65), 70-79세(M=2.64), 80세 이상(M=2.41) 순으로 성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80세 이상의 성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944$, $p<.05$).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이상(M=2.83), 중고등학교(M=2.68), 초등학교 이하(M=2.27) 순으로 성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성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F=24.808$, $p<.001$).

종교는 종교가 없는 응답자(M=2.73)가 종교가 있는 응답자(M=2.55)보다 성 중요도가 더 높았고($t=2.517$, $p<.05$), 건강상태는 좋다(M=2.88), 좋지않다(M=2.47), 보통이다(M=2.44) 순으로 성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건강상태가 좋은 응답자의 성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F=23.763$, $p<.001$).

경제수준은 상(M=2.97), 보통(M=2.57), 하(M=2.48) 순으로 성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이 상으로 부유한 응답자의 성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1.987$, $p<.001$).

<표5-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중요도의 차이

(N=1044)

	구 분	n	Mean	(±)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442	3.14	.90	16.571***	.000	-																																																																																												
	여자	602	2.21	.89				연령	69세 이하 (a)	285	2.65	.94	3.944*	.020	a,b>c	70-79세 (b)	578	2.64	1.03	80세 이상 (c)	181	2.41	1.0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a)	285	2.27	.94	24.808***	.000	c,b>a	중고등학교 (b)	529	2.68	1.03	전문대학 이상 (c)	230	2.83	.90	동거가족	노인세대	773	2.60	1.00	.629	.596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163	2.62	1.08	유배우 가족동거세대	98	2.55	.92	기타	10	3.00	1.17	종교유무	무	291	2.73	1.04	2.517*	.012	-	유	753	2.55	.99	건강상태	좋지않다 (a)	173	2.47	.95	23.763***	.000	c>a,b	보통이다 (b)	490	2.44	.96	좋다 (c)	381	2.88	1.03	경제수준	하 (a)	279	2.48	1.03	11.987***	.000	c>b,a	보통 (b)	622	2.57	.95
연령	69세 이하 (a)	285	2.65	.94	3.944*	.020	a,b>c																																																																																												
	70-79세 (b)	578	2.64	1.03																																																																																															
	80세 이상 (c)	181	2.41	1.0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a)	285	2.27	.94	24.808***	.000	c,b>a																																																																																												
	중고등학교 (b)	529	2.68	1.03																																																																																															
	전문대학 이상 (c)	230	2.83	.90																																																																																															
동거가족	노인세대	773	2.60	1.00	.629	.596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163	2.62	1.08																																																																																															
	유배우 가족동거세대	98	2.55	.92																																																																																															
	기타	10	3.00	1.17																																																																																															
종교유무	무	291	2.73	1.04	2.517*	.012	-																																																																																												
	유	753	2.55	.99																																																																																															
건강상태	좋지않다 (a)	173	2.47	.95	23.763***	.000	c>a,b																																																																																												
	보통이다 (b)	490	2.44	.96																																																																																															
	좋다 (c)	381	2.88	1.03																																																																																															
경제수준	하 (a)	279	2.48	1.03	11.987***	.000	c>b,a																																																																																												
	보통 (b)	622	2.57	.95																																																																																															
	상 (c)	143	2.97	1.11																																																																																															

* p<.05, *** p<.001

3-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성생활 유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18>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생활 유무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이 남성은 성생활을 ‘한다’가 50.6%로 높는데 반해, 여성은 ‘안한다’가 64.6%로 높았다($\chi^2=14.375$, $p<.001$). 연령이 69세 이하는 성생활을 ‘한다’가 52.9%로 가장 높았으나, 70-79세와 80세 이상은 성생활을 ‘안한다’가 각각 61.5%, 62.9%로 높았다($\chi^2=11.954$, $p<.01$).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는 성생활을 ‘안한다’가 71.3%로 매우 높았으나,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이상은 성생활을 ‘한다’가 각각 47.7%, 45.5%로 높았다($\chi^2=13.405$, $p<.01$). 건강상태가 좋지않다는 성생활을 ‘안한다’가 70.5%로 매우 높았고, 보통이다와 좋다는 성생활을 ‘한다’가 각각 43.6%, 48.0%로 높게 나타났다($\chi^2=8.885$, $p<.05$).

경제수준이 하와 보통인 응답자는 성생활을 ‘안한다’가 각각 65.0%, 56.2%로 높았고, 경제수준이 상인 응답자는 성생활을 ‘한다’가 52.3%로 높았다($\chi^2=6.385$, $p<.05$).

<표5-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성생활 유무의 차이
(N=606)

구 분	안한다 한다 계			$\chi^2(p)$	
	n(%)	n(%)	n(%)		
성별	남자	154(49.4)	158(50.6)	312(100.0)	14.375*** (.000)
	여자	190(64.6)	104(35.4)	294(100.0)	
연령	69세 이하	97(47.1)	109(52.9)	206(100.0)	11.954** (.003)
	70-79세	203(61.5)	127(38.5)	330(100.0)	
	80세 이상	44(62.9)	26(37.1)	70(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87(71.3)	35(28.7)	122(100.0)	13.405** (.001)
	중고등학교	161(52.3)	147(47.7)	308(100.0)	
	전문대학 이상	96(54.5)	80(45.5)	176(100.0)	
동거가족	노인세대	279(57.8)	204(42.2)	483(100.0)	1.638 (.651)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11(47.8)	12(52.2)	23(100.0)	
	유배우 가족동거세대	51(54.8)	42(45.2)	93(100.0)	
	기타	3(42.9)	4(57.1)	7(100.0)	
종교유무	무	109(57.4)	81(42.6)	190(100.0)	.041 (.840)
	유	235(56.5)	181(43.5)	416(100.0)	
건강상태	좋지않다	62(70.5)	26(29.5)	88(100.0)	8.885* (.012)
	보통이다	163(56.4)	126(43.6)	289(100.0)	
	좋다	119(52.0)	110(48.0)	229(100.0)	
경제수준	하 (a)	80(65.0)	43(35.0)	123(100.0)	6.385* (.041)
	보통 (b)	223(56.2)	174(43.8)	397(100.0)	
	상 (c)	41(47.7)	45(52.3)	86(100.0)	
합계		344(56.8)	262(43.2)	606(100.0)	

* p<.05, ** p<.01, ***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19>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과 교육수준, 동거가족, 건강상태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연령, 종교유무,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남성(M=3.41)이 여성(M=3.08)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고 ($t=3.182$, $p<.01$),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이상(M=3.39), 중고등학교(M=3.31), 초등학교 이하(M=2.86) 순으로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F=5.495$, $p<.01$). 동거가족은 노인세대(M=3.33), 유배우 가족동거세대(M=3.24), 기타(M=3.00), 무배우 가족동거세대(M=2.58) 순으로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나($F=3.312$, $p<.05$),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그룹 간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건강상태는 좋다(M=3.56), 좋지않다(M=3.15), 보통이다(M=3.05) 순으로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건강상태가 좋은 응답자의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F=12.670$, $p<.001$).

<표5-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

(N=262)

	구 분	n	Mean	(±)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158	3.41	.72	3.182**	.002	-
	여자	104	3.08	.94			
연령	69세 이하	109	3.31	.79	.852	.428	-
	70-79세	127	3.28	.89			
	80세 이상	26	3.08	.69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a)	35	2.86	1.12	5.495**	.005	c,b>a
	중고등학교 (b)	147	3.31	.75			
	전문대학 이상 (c)	80	3.39	.79			
동거가족	노인세대	204	3.33	.83	3.312*	.021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12	2.58	.90			
	유배우 가족동거세대	42	3.24	.73			
	기타	4	3.00	.82			
종교 유무	무	81	3.33	.69	.762	.447	-
	유	181	3.25	.89			
건강상태	좋지않다 (a)	26	3.15	.67	12.670***	.000	c>a,b
	보통이다 (b)	126	3.05	.85			
	좋다 (c)	110	3.56	.76			
경제수준	하	43	3.23	1.02	2.668	.071	-
	보통	174	3.22	.77			
	상	45	3.53	.84			

* p<.05, ** p<.01, ***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유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20>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생활 유무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성생활을 하는 남성은 77.2%이었으며, 성생활을 하는 여성은 58.8%이었다 ($\chi^2=4.211$, $p<.05$). 연령이 69세 이하는 성생활을 ‘한다’가 88.9%로 매우 높았으나, 70-79세와 80세 이상은 성생활을 ‘안한다’도 각각 38.4%, 37.5% 정도로 나타났다($\chi^2=6.928$, $p<.05$).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는 성생활을 ‘안한다’가 58.8%로 매우 높았으나,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이상은 성생활을 ‘한다’가 각각 72.3%, 76.9%로 높았다 ($\chi^2=7.176$, $p<.05$). 건강상태가 좋지않다와 보통이다는 성생활을 ‘안한다’가 각각 54.5%, 56.3%로 높은데 반해, 건강상태가 좋다는 성생활을 ‘한다’가 84.6%로 높았다($\chi^2=19.622$, $p<.001$). 경제수준이 하와 보통은 성생활을 ‘안한다’가 각각 46.2%, 37.3%로 높았고, 경제수준이 상은 성생활을 ‘한다’가 90.3%로 매우 높았다($\chi^2=10.215$, $p<.01$).

<표5-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유무의 차이

(N=108)

구 분		안한다	한다	계	$\chi^2(p)$
		n(%)	n(%)	n(%)	
성별	남자	13(22.8)	44(77.2)	57(100.0)	4.211* (.040)
	여자	21(41.2)	30(58.8)	51(100.0)	
연령	69세 이하	3(11.1)	24(88.9)	27(100.0)	6.928* (.031)
	70-79세	28(38.4)	45(61.6)	73(100.0)	
	80세 이상	3(37.5)	5(62.5)	8(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58.8)	7(41.2)	17(100.0)	7.176* (.028)
	중고등학교	18(27.7)	47(72.3)	65(100.0)	
	전문대학 이상	6(23.1)	20(76.9)	26(100.0)	
동거가족	노인세대	20(32.3)	42(67.7)	62(100.0)	.041 (.840)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14(30.4)	32(69.6)	46(100.0)	
종교유무	무	9(42.9)	12(57.1)	21(100.0)	1.564 (.211)
	유	25(28.7)	62(71.3)	87(100.0)	
건강상태	좋지않다	6(54.5)	5(45.5)	11(100.0)	19.622*** (.000)
	보통이다	18(56.3)	14(43.8)	32(100.0)	
	좋다	10(15.4)	55(84.6)	65(100.0)	
경제수준	하 (a)	12(46.2)	14(53.8)	26(100.0)	10.215** (.006)
	보통 (b)	19(37.3)	32(62.7)	51(100.0)	
	상 (c)	3(9.7)	28(90.3)	31(100.0)	
합계		34(31.5)	74(68.5)	108(100.0)	

* $p<.05$, ** $p<.01$, ***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2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과 교육수준, 동거가족,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은 남성(M=4.36)이 여성(M=3.53)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t=4.223, p<.001$).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이상(M=4.45), 중고등학교(M=3.96), 초등학교 이하(M=3.29) 순으로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의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F=5.004, p<.01$).

동거가족은 노인세대(M=3.83)보다 무배우 가족동거세대(M=4.28)의 성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t=-2.263, p<.05$), 종교가 없는 응답자(M=3.50)보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M=4.13)의 성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t=-2.223, p<.05$). 건강상태는 좋다(M=4.24), 보통이다(M=3.43), 좋지않다(M=3.40) 순으로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그룹 간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제수준은 상(M=4.75), 보통(M=3.69), 하(M=3.36) 순으로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이 상인 응답자의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F=23.395, p<.001$).

<표5-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

(N=74)

	구 분	n	Mean	(±)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44	4.36	.78	4.223***	.000	-																																																																																				
	여자	30	3.53	.90				연령	69세 이하 (a)	24	4.25	.90	2.878	.063	-	70-79세 (b)	45	4.00	.90	80세 이상 (c)	5	3.20	.8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a)	7	3.29	1.11	5.004**	.009	c,b>b,a	중고등학교 (b)	47	3.96	.88	전문대학 이상 (c)	20	4.45	.76	동거가족	노인세대	42	3.83	1.06	-2.263*	.027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32	4.28	.63	종교유무	무	12	3.50	.52	-2.223*	.029	-	유	62	4.13	.95	건강상태	좋지않다 (a)	5	3.40	.89	6.343**	.003	-	보통이다 (b)	14	3.43	.85	좋다 (c)	55	4.24	.86	경제수준	하 (a)	14	3.36	.93	23.395***	.000	c>b,a	보통 (b)	32	3.69	.69
연령	69세 이하 (a)	24	4.25	.90	2.878	.063	-																																																																																				
	70-79세 (b)	45	4.00	.90																																																																																							
	80세 이상 (c)	5	3.20	.8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a)	7	3.29	1.11	5.004**	.009	c,b>b,a																																																																																				
	중고등학교 (b)	47	3.96	.88																																																																																							
	전문대학 이상 (c)	20	4.45	.76																																																																																							
동거가족	노인세대	42	3.83	1.06	-2.263*	.027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32	4.28	.63																																																																																							
종교유무	무	12	3.50	.52	-2.223*	.029	-																																																																																				
	유	62	4.13	.95																																																																																							
건강상태	좋지않다 (a)	5	3.40	.89	6.343**	.003	-																																																																																				
	보통이다 (b)	14	3.43	.85																																																																																							
	좋다 (c)	55	4.24	.86																																																																																							
경제수준	하 (a)	14	3.36	.93	23.395***	.000	c>b,a																																																																																				
	보통 (b)	32	3.69	.69																																																																																							
	상 (c)	28	4.75	.65																																																																																							

* p<.05, ** p<.01, *** p<.001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22>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성별, 동거가족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은 69세 이하(M=3.54), 70-79세(M=3.44), 80세 이상(M=3.36)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69세 이하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6.315, $p < .01$).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이상(M=3.55), 중고등학교(M=3.47), 초등학교 이하(M=3.35)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았다(F=8.038, $p < .001$). 종교는 종교가 없는 응답자(M=3.40)보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M=3.48)의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t = -1.983$, $p < .05$).

건강상태는 좋다(M=3.75), 보통이다(M=3.36), 좋지않다(M=3.06)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건강상태가 좋은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았다(F=127.417, $p < .001$).

경제수준은 상(M=3.90), 보통(M=3.49), 하(M=3.14)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이 상으로 부유한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하인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07.500, $p < .001$).

<표5-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N=1044)

	구 분	n	Mean	(±)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442	3.42	.57	-1.872	.061	-
	여자	602	3.48	.56			
연령	69세 이하 (a)	285	3.54	.58	6.315**	.002	a,b>b,c
	70-79세 (b)	578	3.44	.55			
	80세 이상 (c)	181	3.36	.5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a)	285	3.35	.56	8.038***	.000	c,b>a
	중고등학교 (b)	529	3.47	.58			
	전문대학 이상 (c)	230	3.55	.52			
동거가족	노인세대	773	3.44	.56	.878	.452	-
	무배우 가족동거세대	163	3.49	.61			
	유배우 가족동거세대	98	3.51	.54			
	기타	10	3.37	.51			
종교유무	무	291	3.40	.57	-1.983*	.048	-
	유	753	3.48	.56			
건강상태	좋지않다 (a)	173	3.06	.59	127.417***	.000	c>b>a
	보통이다 (b)	490	3.36	.49			
	좋다 (c)	381	3.75	.49			
경제수준	하 (a)	279	3.14	.57	107.500***	.000	c>b>a
	보통 (b)	622	3.49	.49			
	상 (c)	143	3.90	.47			

* p<.05, ** p<.01, *** p<.001

연구문제4.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및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4-1. 배우자의 친밀도,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친밀도, 성 관련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5-23>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배우자 친밀도($r=.396, p<.001$)와는 정의 상관이 있었고, 성 인식도의 성 태도($r=.146, p<.001$), 성 중요도($r=.081, p<.01$)와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이 있었으나, 성 욕구와의 상관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생활 유무($r=.162, p<.001$)와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23> 배우자 친밀도, 성 관련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

(N=606)

구 분	배우자 친밀도	성 인식도			성생활 유무 ¹⁾	주관적 안녕감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		
배우자 친밀도	1					
성 인식도	성 욕구	.204***	1			
	성 태도	.279***	.797***	1		
	성 중요도	.244***	.784***	.826***	1	
성 인식도	.264***	.912***	.933***	.948***	1	
성생활 유무 ¹⁾	.250***	.294***	.362***	.351***	.368***	1
주관적 안녕감	.396***	.048	.146***	.081**	.098**	.162***

* $p<.05$, ** $p<.01$, *** $p<.001$

1) 성생활 유무 : 0=안한다, 1=한다

노년기 배우자 친밀도,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5-24>와 같다. 노년기의 배우자 친밀도, 성 관련 특성이 주관

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치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델1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R^2=0.251$ 로 전체 변동의 25.1%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28.660$,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제수준($\beta=.318$, $p<.001$), 건강상태($\beta=.309$, $p<.001$), 연령($\beta=-.086$, $p<.05$)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제수준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모델2에서 배우자 친밀도를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9.6%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34.7%가 되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39.627$, $p<.001$). 배우자 친밀도($\beta=.330$, $p<.001$), 경제수준($\beta=.266$, $p<.001$), 건강상태($\beta=.259$, $p<.001$), 성별($\beta=.129$, $p<.01$), 연령($\beta=-.072$, $p<.05$)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배우자 친밀도가 높을수록, 경제수준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여자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모델3에서 성 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하여 설명력은 2.2%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6.8%로 높게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고($F=28.823$, $p<.001$), 배우자 친밀도($\beta=.307$, $p<.001$), 경제수준($\beta=.285$, $p<.001$), 건강상태($\beta=.247$, $p<.001$), 성 태도($\beta=.223$, $p<.01$), 성 욕구($\beta=-.211$, $p<.001$), 성별($\beta=.108$, $p<.05$)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배우자 친밀도가 높을수록, 경제수준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성 태도가 높을수록, 성 욕구가 낮을수록, 여성인 경우에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5-24> 배우자 친밀도,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N=606)

구 분	종속변수 : 주관적 안녕감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상수)	2.368		1.464		1.364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046	.044	.135	.129**	.113	.108*
	연령	-.008	-.086*	-.006	-.072*	-.004	-.046
	교육수준	-.019	-.040	-.001	-.002	-.002	-.003
	동거가족_노인세대 ²⁾	.056	.043	.030	.023	.034	.026
	종교유무 ³⁾	.062	.055	.023	.020	.027	.024
	건강상태	.236	.309***	.198	.259***	.189	.247***
	경제수준	.285	.318***	.238	.266***	.255	.285***
성 관련 특성	배우자 친밀도			.256	.330***	.238	.307***
	성 욕구					-.124	-.211***
	성 태도					.123	.223**
	성 중요도					-.028	-.051
	성생활 유무 ⁴⁾					.041	.038
	R^2	.251		.347		.368	
	adj R^2	.242		.338		.356	
	ΔR^2			.096		.022	
	F	28.660***		39.627***		28.823***	
	ΔF			87.410***		5.059**	

* $p < .05$, ** $p < .01$, *** $p < .001$

1) 성별 : 0=남자, 1=여자

2) 동거가족 : 0=노인세대 외, 1=노인세대

3) 종교유무 : 0=없음, 1=있음

4) 성생활 유무 : 0=안한다, 1=한다

4-2. 이성친구의 친밀도,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의 이성친구 친밀도, 성 관련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5-25>와 같다. 노년기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이성친구 친밀도($r=.456, p<.001$)와는 높은 정의 상관이 있었고, 성 인식도의 성 태도($r=.146, p<.001$), 성 중요도($r=.081, p<.01$)와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이 있었으나, 성 욕구와의 상관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생활 유무($r=.403, p<.001$)와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25> 이성친구 친밀도, 성 관련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 (N=108)

구 분	이성 친구 친밀도	성 인식도			성생활 유무 ¹⁾	주관적 안녕감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		
이성친구 친밀도	1					
성 인식도	성 욕구	.454***	1			
	성 태도	.538***	.797***	1		
	성 중요도	.456***	.784***	.826**	1	
성 인식도	.513***	.912***	.933***	.948***	1	
성생활 유무 ¹⁾	.506***	.531***	.440***	.474***	.514***	1
주관적 안녕감	.456***	.048	.146***	.081**	.098**	.403***

* $p<.05$, ** $p<.01$, *** $p<.001$

1) 성생활 유무 : 0=안한다, 1=한다

이성친구의 친밀도,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5-26>과 같다. 이성친구의 친밀도,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고,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 값은 모두 10 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델1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R^2=0.570$ 으로 전체 변동의 57.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18.973$,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건강상태($\beta=.483$, $p<.001$), 경제수준($\beta=.286$, $p<.01$), 종교유무($\beta=.154$, $p<.05$)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양호할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모델2에서 이성친구 친밀도를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7.1%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4.2%가 되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22.147$, $p<.001$). 건강상태($\beta=.481$, $p<.001$), 이성친구 친밀도($\beta=.303$, $p<.001$), 경제수준($\beta=.188$, $p<.05$), 종교유무($\beta=.170$, $p<.05$)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양호할수록, 이성친구 친밀도가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모델3에서 성 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하여 설명력은 2.6%가 증가하였으나, 이 설명력의 증가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해당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66.8%로 나타났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고($F=15.900$, $p<.001$), 건강상태($\beta=.411$, $p<.001$), 성 태도($\beta=.299$, $p<.05$), 경제수준($\beta=.208$, $p<.05$), 성별($\beta=.197$, $p<.05$), 연령($\beta=.193$, $p<.05$), 이성친구 친밀도($\beta=.185$, $p<.05$), 종교유무($\beta=.140$, $p<.05$)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양호할수록, 성 태도가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이성친구 친밀도가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5-26> 이성친구 친밀도, 성관련 특성이 주관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N=108)

구 분	종속변수 : 주관적 안녕감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상수)	.171		-1.142		-2.067		
인구사 회학적 특성	성별 ¹⁾	.120	.093	.156	.120	.255	.197*
	연령	.010	.075	.015	.111	.027	.193*
	교육수준	-.016	-.025	-.024	-.037	.003	.005
	동거가족_노인세대 ²⁾	-.080	-.061	-.012	-.009	-.037	-.028
	종교유무 ³⁾	.251	.154*	.278	.170*	.229	.140*
	건강상태	.464	.483***	.462	.481***	.395	.411***
	경제수준	.255	.286**	.164	.183*	.186	.208*
이성친구 친밀도			.318	.303***	.194	.185*	
성 관련 특성	성 욕구					-.001	-.002
	성 태도					.203	.299*
	성 중요도					-.125	-.179
	성생활 유무 ⁵⁾					.177	.127
R^2	.570		.642		.668		
adj R^2	.540		.613		.626		
ΔR^2			.071		.026		
F	18.973***		22.147***		15.900***		
ΔF			19.624***		1.863		

* $p < .05$, ** $p < .01$, *** $p < .001$

1) 성별 : 0=남자, 1=여자

2) 동거가족 : 0=노인세대 외, 1=노인세대

3) 종교유무 : 0=없음, 1=있음

4) 성생활 유무 : 0=안한다, 1=한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파트너 유형에 따라 친밀도와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파트너 유형별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및 논의

1) 노년기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일반적 경향

노년기 배우자와의 친밀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63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이성친구 친밀도의 전체 평균 3.63점과 동일한 점수이다. 그러므로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파트너와의 친밀감은 부부인 경우는 물론이고, 원대호(2003)의 이성교제 상대와의 친밀감 조사에서 3.23점(4점 만점)의 높은 점수와 같이 이성친구인 경우에도 친밀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Carstensen(1993)이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와의 관계는 오히려 긴밀해진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노인 부부뿐 아니라 홀로된 노인의 이성친구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노년기 이성간의 우정은 비록 성적 요인이 없거나 실질적 보살핌이 없더라도 거의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말한 O'connor(1993)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년기 성 인식도 전체 평균은 2.57점으로, '성 태도'(M=2.65), '성 중

요도'(M=2.60), '성 욕구'(M=2.46) 순으로 높았다. 이는 유수경(2003)의 독신 노인대상 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에 대한 성 인식도 조사결과 전체 평균이 2.30(남성 노인 2.56, 여성노인 1.96) 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다소 높은 점수이다. 또한 김주희 · 이창은(2000)의 유배우자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 결과 성 욕구가 평균 4점 만점에 2.60점, 성 태도 2.52점, 성 중요도 2.36점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와는 달리 성 욕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성 인식도의 전체 점수와는 매우 비슷한 결과이다. 노년기 성 인식도의 세부항목별 결과는 성 태도에서는 '노년기에도 성적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자주해야 한다.', 성 중요도에서는 '성생활은 노년기에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성 욕구에서는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항상 성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문항에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비록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노년기에도 분명히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태도와 함께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성생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비록 마음으로는 항상 성생활을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년기 배우자와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는 43.2%이었고 성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7.8%이었고,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들 중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는 68.5%이었고, 성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8.3%로 매우 높았다.

연구대상의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의 전체 평균은 3.46의 매우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은 '현재 매우 우울하며 불행하다.(+)', '나는 매우 외롭고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낀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기 원한다.', '나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힘이 든다.(+)'라고 응답하여, 이 부분(+)을 역으로 해석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였다. 이처럼 응답자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하며 열심히 노년의 삶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2)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는 배우자 친밀도와 이성친구 친밀도가 같았다. 그러나 세부 질문문항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우선 ‘나의 삶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소중하다.’는 문항에 배우자 집단(M=4.05)과 이성친구 집단(M=3.90)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배우자 집단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나는 파트너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정서적 격려 및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문항의 결과에서 배우자 집단(M=3.87)은 상당히 높은 점수임에 비해 이성친구 집단(M=3.44)은 오히려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배우자를 이성 친구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정서적 격려 및 경제적 지원 역시 배우자를 중심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 인식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 모두 파트너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 인식도는 이성친구(M=3.27), 배우자(M=2.70), 파트너 없음(M=2.1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 욕구, 성 태도, 성 중요도 모두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가 가장 높았다. 이는 고연희(2008)의 연구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노인(2.97)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노인(2.41)보다 성 인식도가 높았고, 세부적인 하위항목 수준은 이성교제를 하는 노인의 경우 성 태도(3.03), 성 욕구(2.94), 성 중요도(2.94)가 모두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에는 성 태도(2.45), 성 욕구(2.42), 성 중요도(2.35)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성교제를 하는 노인의 경우가 노인 부부집단이나 파트너가 없는 집단보다 평균점수가 현저히 높은 이유는 노년기 이성교제의 결과 성 인식이 개방적 · 긍정적으로 변화 된 것이라기보다는, 노년기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노인의 경우가 이성교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됨으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아울러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유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한다’가 68.5%로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안한다’가 56.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이성친구와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가 성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는 전체의 78.3%(M=4.03)로 매우 높았다. 이는 배우자(M=3.27)와 성생활을 하는 응답자 중 만족하는 경우인 전체 37.8%(M=3.27)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년기 부부간의 성생활은 신체적 노화를 비롯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하지 않게 되며 성생활을 하더라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성친구와의 성생활은 관계유무나 만족도 면에서 배우자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뒷받침할 연구가 요구되는 가운데, 여러 심리적 · 사회적인 이유들과 함께 심리적 피로(Psychological Fatigue)라고 하는 권태기가 찾아온 것이거나 쿨리지 효과(coolidge effect)⁷⁾와 같은 원인이 작용하는 것이라 본다.

또한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에서는 이성친구, 배우자, 파트너 없음 순으로 파트너가 없는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만(2001)의 연구에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가 유의하며, 배우자가 있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과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고연희(2008)의 노인의 이성교제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에서도 이성교제를 하는 노인이 하지 않는 노인에 비

7) 미국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로 생물학과 심리학에서, 포유류의 수컷이 새로운 교미 대상이 나타났을 때 성적인 흥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위키피아 백과사전).

해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하위항목 중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노인의 경우 자아존중감, 현실만족감, 자아성취감, 노화에 대한 태도 모두에서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는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하겠다. 더불어 노인 이성교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거나 현재 이성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볼 수가 있다(최복란, 1996: 이예중, 2001: 김응갑, 2002: 박찬섭, 2002: 정옥길, 2006: 고연희, 2008: 최생용, 2013 등).

이상과 같이 노년기에는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결혼생활을 친밀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다. 즉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노년의 건강과 수명을 증진시키며 주관적 안녕감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득이 하게 홀로된 노인의 경우에 이성 파트너의 필요성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3)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도, 성 관련 특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년기 배우자 친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과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연령, 교육수준, 동거가족,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는 남성이고,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배우자 친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연옥(2011)의 노년기 부부친밀감에 대한 연구결과 노인의 부부친밀감은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이, 건강한 경우, 생활수준이 여유가 있고, 배우자와 종교가 같고, 침실을 같이 사용하며, 성인자녀와의

결속력이 높고, 부부간 의사소통이 잘될 경우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이, 건강한 경우, 생활수준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친밀감이 높다는 보고와는 일치하지만 학력이 높은 경우 부부친밀감이 높다는 부분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것이 부부 친밀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친구 친밀도의 차이를 보면, 응답자의 동거가족과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이성친구 친밀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동거가족은 무배우 가족동거 세대가 노인세대 보다 이성친구 친밀도가 더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수준이 좋은 경우에 이성친구 친밀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이예중(2001)의 연구에서 경제부양자를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인식도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성별은 남자이고,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종교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성 인식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경자(2002)의 노년기의 성 인식이란 연령 · 성별 · 종교 · 교육정도 · 성생활빈도 · 성적욕구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는 보고와는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황영원(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주관적 경제수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성별, 배우자 유무,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은 노년기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는 많이 다른 결과로, 이는 황영원(2006)은

연구대상을 2003년도 당시 김해시의 ‘교통비 지급대상 노인 명단’을 모집단으로 한 차이점에서 야기된 결과라 추측하여 본다.

그리고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욕구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욕구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성별은 남성이고, 연령은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성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별은 남성이고, 연령은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성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 중요도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의 중요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성별은 남성이, 연령은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종교가 없고, 건강상태는 좋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의 성 중요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주희 · 이창은(2000)의 유배우자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 결과 성별 · 경제력 · 교육수준에 따라 성 욕구에 차이가 있었고,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라 성 태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 동거유형 · 종교 · 교육수준에 따라 성 중요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와는 성 중요도에서 종교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는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성생활 유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에 따른 성생활 유무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 종교유무,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별이 남성이고,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가장 많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성별과 교육수준, 동거가족, 건강상태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연령, 종교유무,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별은 남성이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동거가족은 노인세대가 Scheffe 검증에서는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유무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생활 유무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동거가족,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성별은 남성이고,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수준 높은 경우 성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성친구와의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성별과 교육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별은 남성이고,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동거가족은 무배우 가족동거세대가,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노년기에도 분명히 성생활을 해야 하며 또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도 성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이성친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특히 더 높았다. 그러므로 이는 Maslow(1954)의 모든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태어나며 이러한 욕구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는 주장과 인간에게 있어서 성적욕구는 식욕이나 휴식의 욕구와 함께 가장 강한 1차적 욕구라고 한 최순남(1999)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성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 이상으로 부부관계 및 이성친구 관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회적 관계이며 노년기에 나타나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대신하여 노년기

의 주관적 안녕감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Spencer(1991)가 지적한 노년기의 성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들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며, 더불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와 인식을 가진 노인 대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되 반드시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연령과 교육수준,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성별, 동거가족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령이 낮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종교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은,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생용(2013)의 노인의 이성교제 · 성이 고독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학력, 결혼상태, 동거가족, 건강상태, 경제상태, 월 용돈 등에 따른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홀로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노년기 심리적 복지감 또는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는 이예중(2001), 원대호(2003)의 연구결과와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 김응갑(200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경제적 수준을 주장하였는데, 황영원(2006)은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 배우자 유무,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은 노년기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일하게 주관적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였다. 박혜성(2007)의 연구 또한 노인 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감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권재숙(2012)은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은 경제수준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박충선, 1990; 홍숙자, 1992; 윤에스더, 1999; 김지훈, 1997; 김유경, 2000; Larson, 1978). 그러므로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던 전통적 인식을 탈피하여야 하며, 노인 스스로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을 설계토록 함은 물론, 유산에 대한 계획이나 자산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수적이다.

4)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도 및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노년기 배우자 친밀도 및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회귀분석의 모델3에서 성 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한 결과 배우자 친밀도, 경제수준, 건강상태, 성 태도, 성 욕구, 성별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배우자 친밀도가 높을수록, 경제수준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성 태도가 높을수록, 성 욕구가 낮을수록, 여성인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두래(2015)의 남성노인의 성생활 인식도가 성 욕구 대처행동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부부가 함께 동거할수록,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는 결과와 학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김영만(2001)의 연구에서는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노년기 이성친구의 친밀도,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모델3에서 성 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하여 설명

력은 2.6%가 증가하였으나, 이 설명력의 증가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투입 된 성 관련 특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양호할수록, 이성친구 친밀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여자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있는 부부 집단과 이성친구 집단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파트너와의 친밀도와 경제수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부부집단의 경우에 배우자와의 친밀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성친구 집단은 상호간의 친밀감보다는 경제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상대적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생활 유무나 성 인식도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을 보면 배우자 집단과 이성친구 집단 모두가 성 욕구를 제외한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지만, 회귀분석의 결과 성생활 유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성 인식은 배우자 집단에서만 성 태도가 높을수록, 성 욕구가 낮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먼저 파트너가 있는 두 집단 모두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고 부부 집단보다 이성친구 집단의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그리고 파트너와의 친밀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친밀감이 더욱 중요하나 이성친구 간에는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친밀감 보다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건강상태, 경제수준 등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경제적 수준을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노년기 성은 건강과 삶의 질 면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능동적인 성생

활과 이성 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곽영수(1993)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노년기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인구사회학적 변인중 경제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는 김홍란(2004)의 보고는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성생활 유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깊은 상관은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결과를 보였기에 연구자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노년기 파트너의 유무 및 파트너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서, 최근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높아진 노년기 부부관계 강화 및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과 동시에 노년기 이성친구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2. 제언 및 제한점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 정책적 제언과 함께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자 한다.

1) 제언

첫째, 파트너 친밀감 향상과 관계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무엇보다 먼저 현재 노인복지관 중심의 복지현장에서 노년기 부부관계는 물론 이성친구 관계 강화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노년기에 홀로가 아닌 파트너와의 친밀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파트너 관계강화를 위한 긍정적 감정의 교류, 의사소통 훈련 및 자기효능감 강화 프로그램 등을 부부대상 또는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고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낮은 노인 즉 남자가 아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제수준이 낮은 노인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노년기 부부 및 이성친구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의 설립

현대 사회의 대표적 인구학적 변화인 저 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비롯한 황혼 이혼율 및 노인 자살율의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실로 다양하고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 치료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적 접근과 함께 지역사

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박주희, 2015). 다시 말해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노년기에 부딪치게 될 다양한 문제 중심의 사전 예방교육과 함께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과 예절 교육, 위생 및 건강관리 교육, 노후의 연금제도 및 자산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무엇보다 자아통합과 자기실현을 위한 가치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치료적인 차원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또한 가족문제 상담을 비롯하여 법률상담, 건강상담, 신앙상담 등의 여러분야별 전문 상담가를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상담 및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 상담가 양성 및 상담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년기 부부 및 이성친구 간의 성문제를 비롯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의 공원 주변에서 방황하거나 시골의 방치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치료적 차원의 상담 및 교육 서비스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노년기 부부·이성친구·무배우자와 같은 파트너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되 통합적·종합적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홀로된 노인을 위한 결혼상담센터(Marriage Counseling Center) 설립

오늘날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결혼, 이혼 및 이성교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의 이성교제나 재혼이 늘어가는 추세이며 홀로된 노인들 다수가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 또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원하고 있다. 혼자 사는 독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역사는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P.W.P(Parents Without Partners) 운동

에서부터 유럽과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었는데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홀로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참여자들의 욕구와 지역적·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노인복지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홀로된 노인들의 고독감 해소를 위한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행사로 연 1회 정도씩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사후관리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손화정, 2008).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 성문제, 이성교제 및 재혼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기관 설립으로, 노년기의 건강한 성과 성 인식 그리고 이성교제, 황혼이혼 예방 및 노인의 재혼 문제 등을 전문으로 하는 결혼상담사 양성과 함께 반드시 노인 결혼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상담센터⁸⁾를 설립하여 노년기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고민 상담과 이성교제를 위한 사전준비교육 프로그램, 이성친구와의 만남의 장과 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성교제 및 재혼 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결혼상담(marriage counseling)·결혼교육(marriage education)·결혼만남(match making)·결혼예식(wedding event) 등의 영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조수동, 2001; 조수동, 2002).

넷째, 기존 노인복지 및 상담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

무엇보다 즉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존의 노인복지관들에서

8) 박종삼(1985)에 의하면 미국에서 전문적인 결혼상담(The Marriage Counseling)의 발달은 1929-1932년 사이에 미국 동부(New York중심)와 서부(Los Angeles중심)에서 구라파의 영향을 받아 전문결혼상담센터 설립과 연구지 발간, 그리고 초창기의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후로 1934-1945년 사이에 정식으로 미국결혼상담가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Marriage Counselors)가 조직되었고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자격과 전문적 훈련 및 인격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조수동, 1987: 재인용).

그동안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시범적인 차원에서 실시하였던 노년기 부부 관계강화 및 성 상담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개별 노인복지관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였던 홀로된 노인들을 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널리 보급함과 동시에 노인 부부 및 노인 이성교제 관련 소그룹 동아리를 활성화 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노인특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차별화하여 노인 부부문제 상담 및 성폭력 문제, 성병 예방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째, 관련 후속 연구

노년기 성문제와 부부관계 및 이성친구 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용어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과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복지감, 삶의 질, 생활만족도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개념적 정의를 하였지만, 여러 선행 연구에서 너무나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어 사용자나 연구자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정부 및 학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명확한 개념정립과 구분이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 사용된 주관적 안녕감, 성 인식도, 친밀감 등의 척도 또한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다양한 검증과 연구를 거쳐 보다 적합한 척도개발이 요구된다.

(2)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비롯한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명료한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예로서 김홍란(2004)의 노년기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인구사회학적 변인중 경제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는 보고는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성생활 유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깊은 상관관은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결과와 같은 부분의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즉 노년기 자녀를 비롯한 가족과의 친밀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에는 파트너가 있는 사람의 주관적 안녕감이 더욱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된 여성 노인의 경우 힘들게 하던 남편이 없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편하고 행복하다는 많은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4) 부부 집단에 비해 이성친구 집단의 주관적 행복감과 성생활 만족도가 더욱 높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는 연구와 함께, 무엇보다 노년기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끝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년기의 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노년기 부부가 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마저 금기시되고 있다. 또한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나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탐골공원을 비롯한 대도시 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나 인근 야산 등지에

서 속칭 산새, 다람쥐 아줌마를 상대로 하는 노인들의 매매춘 행위나 성관련 기구 및 약물의 오남용 사례 역시 이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풍경 중 하나가 되었다(임재욱 외, 2015).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성이란 젊은 층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노년층에게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2)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발표 자료는 우리나라 노인의 총체적 문제와 위기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고취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력은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등에 대한 철저한 계몽과 교육이 요구된다. 더불어 생계비와 함께 교육문화비 지원, 정년연장, 노후관련 금융상품 및 재테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의 사회보장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3) 건강한 사회의 기본은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의 방향을 늙어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힘이 없는 노인이 아닌, 누구나 허리를 굽혀 존경하는 자세로 인사를 하는 인생선배로서의 노인이 되도록 복지적 · 교육적 · 사회적 차원에서 아름다운 효 문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도 분명한 주체적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일부분이며, 현재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이용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측면의 수준이 높은 어르신들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설문 문항 중에 성생활과 관련한 예민한 문항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응답을 얻기에 다소간의 한계가 있었다.

셋째, 응답한 노인들이 설문의 문항수가 많고 질문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질적 연구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승덕. (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p. 100-103.
- 고연희. (2008). “독신노인의 이성교제 및 성의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탐라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p. 47.
- 공수자. (2003). “한국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 개발: 자존심의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pp. 74-75.
- 곽영수. (1993). “노화의 적응에 관한 심리사회적 연구: 노화의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서 성생활의 기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 “한눈에 보는 보고서”.
- 김경신 · 이선미. (2001).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제10권, pp. 31-54.
- 김경자. (2002). “여성 노인의 성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pp. 41-43, pp. 52-54.
- 김경호. (2004).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유형과 가족의 건강성, 무력감, 자긍심 및 행복감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pp. 48-49.
- 김미라. (2001). “부부친밀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pp. 4-5.
- 김미령. (2008).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pp. 33-48, 한국노년학회.

- 김영만. (2001). “노인의 유머감각이 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pp. 31-32.
- 김유경. (2000). “세대 간의 유대관계와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p. 49-84.
- 김은진. (1995). “홀로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p. 5-6.
- 김응갑. (2002).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p. 3, p. 8.
- 김주희 · 이창은. (2000). “유배우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20(3), pp. 185-195, 한국노년학회.
- 김지훈. (1997). “농촌노인 단독가구 노인의 성인자녀관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태현. (1977). “가족해체와 성윤리, 현대사회와 성윤리”,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pp. 95-99.
- _____. (1994). 노년학, 교문사.
- _____. 한희선. (1996). “노년기의 성”,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 10, pp. 89-107.
- _____. 김동배 · 김미혜 · 이영진 · 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1), pp. 61-81.
- 김현덕. (2012). “홀로된 노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pp. 40-42.
- 김홍란. (2004). “노년기 부부를 위한 성적 갈등 대처교육 프로그램”,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대학원, pp. 10-13, pp. 52-54..
- 김현란. (2014).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pp. 25-26.

- 권재숙. (2012).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산대학교 대학원, pp. 93-94.
- 금기윤. (2011).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만족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독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p. 30.
- 문승원. (2004).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지식과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pp. 39-44.
- 박연옥. (2011). “노년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pp. 66-67.
- 박용석. (2006). “혼자된 노인의 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pp. 29-42.
- 박은아 · 이정우. (2003). “노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경영자원학회지, 제7권(제2호), pp. 25-44.
- 박종삼. (1985). “결혼상담 전문화의 필요성”, YMCA주최 세미나용 자료, pp. 5-12.
- 박주희. (2015).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의 접근과 전문가 양성의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가정관리학회, pp. 125-128.
- 박찬섭. (2002).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및 재혼에 대한 태도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p. 12.
- 박충선. (1990). “대구 경북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생활연구 제5권,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pp. 5-20.
- 박혜성. (2007).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p. 74-77.

- 배나래 · 박충선. (2002). “홀로된 노인의 성과 이성교제가 노년기 재혼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 제7호, pp. 111-132, 한국가족관계학회.
- 서명선. (2002). “노인의 성의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pp. 51-55.
- 서혜경 · 이영진. (1997). “노년기의 성에 대한 다각적 고찰, 노인의 성 정년은 언제인가”, 동신대학교 부설 노인복지연구소, pp. 197-214.
- 손화정. (2008). “이성교제 프로그램 참여가 홀로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p. 2, pp. 11-12.
- 신지원. (2014). “노인의 성인식이 고독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p. 7.
- 심창교. (2008). “노년기 부부성숙프로그램 개발: 개입연구 방법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서울여대 대학원, p 34.
- 안옥희 · 박인전. (1993). “도시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가사노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4), pp. 1-22.
- 안태운 · 김영혜 외. (2011).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정책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p. 85.
- 오세근. (1997). “노인의 성적권리에 대한 복지철학적 이해, 노인의 성, 정년은 언제인가?”, 동신대학교부설 노인복지연구소 주최 세미나자료집.
- 오진주. (1999).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2), pp. 236-251.
- 유성호 · 김혜경. (2003). 60대 사별노인의 성에 관한 질적 고찰,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서울: 푸른북, pp. 237-273.

- 유수경. (2003). “독신노인의 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p. 39-41.
- 윤옥중. (2010). “사별한 노인의 연애 체험”,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 9.
- 윤에스더. (1999). “노인의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윤재실. (2010).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p. 63.
- 이미라. (2009). “노인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따른 성대처행동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선미 · 김경신. (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pp. 139-157.
- 이운수. (2014). “노인의 부부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p. 20, pp. 75-76.
- 이윤숙. (1990). 노인과 성,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
- 이예중. (2001). “노인의 이성교제가 심리적 복리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p. 15.
- _____ · 장진경. (2002). “노인의 이성교제가 심리적 복리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0호, pp. 141-156.
- 이자경. (2010).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인자에 관한 연구 :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pp. 6-7.
- 이정애. (1998). “노인의 친구관계와 일상적 사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정훈. (2012). “노인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pp. 25-26.
- 이주일 · 정지원 · 이정미. (2006). “미국거주 한인 노인과 국내노인 간 행복감의 차이 및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제12권 제5호 특집호. pp. 169-203.
- 이지은. (2015). “노인의 이성교제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p. 5, p. 15.
- 이지희. (2005). “홀로된 여성노인의 이성교제 욕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 10.
- 이창은. (2000). “노인의 성생활인식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p. 18.
- 이향란. (2013).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에 따른 성공적 노화”,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pp. 22-28, pp. 95-96.
- 이혜선. (2002). “중년기부부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기독교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p. 29.
- 이혜자 · 김윤정. (2004). “부부관계(사랑과 성)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4), pp. 197-214.
- 임주영 · 전귀연. (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한국노년학, 24(1), pp. 71-87, 한국노년학회.
- 임재욱 · 서연숙 · 송노원 · 송혜자 · 이승준 · 정태명 · 조수동 · 한승협, (2015). 「노인복지론」, 양서원, pp. 271-272, p. 306, pp. 311-312.
- 임춘식 · 최복란. (1997). “노인의 이성교제와 재혼태도에 관한 사례연구”, 한남대논문집 사회과학, 27, pp. 63-97.

- 임춘희 · 박경란. (1997). “노년기 재혼가족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 15(4), pp. 183-267, 한국가정관리학회.
- 원대호. (2003).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및 성생활인식과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p. 15-17.
- 위키피아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 장석주. (1997). 가족해체와 성윤리, 현대사회와 성윤리,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pp. 77-126.
- 장진경. (2002). “노인의 이성교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7호), p. 142.
- 장현숙. (2015). “노인의 성 인식과 성교육 수요가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pp. 49-55, pp. 98-99.
- 장혜경. (1998). “한국노인의 안녕 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전차수. (1998).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와 노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여성학대학원, pp. 35-65.
- 전현식. (2001). “홀로된 노인의 성생활욕구태도와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pp. 26-42.
- 정옥길. (2006). “사별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정인숙. (2003).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논문집, 25권, pp. 169-177.
- 정종열. (2010). “65세 이상 홀로된 남성 노인의 성 인식 및 태도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대학원, pp. 16-19.

- 정재필. (2009). “노인의 이성교제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pp. 13-14, p. 40.
- 정태연 · 조은영. (2005).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점 :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 지향성의 차이: 관계와 과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조성자. (2011). “노년기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우울, 자기효능감, 마인풀니스(mindfulness)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p. 9.
- 조성희 · 김윤정. (2011). “노년기 부부친밀감이 배우자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pp. 765-791.
- 조수동. (1987). “결혼상담 전문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p. 31.
- _____. (2001). “장애인 결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경북재활복지.
- _____. (2002). “오! 결혼복지” 현도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제1회 학술제. 세상 속의 복지 엿보기, pp. 94-96.
- 조윤주. (2006). “생산활동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 12.
- 조황숙. (2000). “홀로된 여성노인의 자매관계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주성숙 · 윤숙례. (1993). “노부부와 홀로 사는 노인들 간의 일반건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13(1), pp. 153-162, 한국노년학회.
- 최갑현. (2016). “은퇴자의 여가문화활동과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최두래. (2015). “남성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가 성욕구 대처행동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pp. 66-67.
- 최복란. (1996). “노인의 이성교제와 재혼 태도에 관한 사례 연구”, 논문집: 사회 과학편, pp. 63-97.
- 최순남. (1999).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
- 최생용. (2013). “노인의 이성교제·성이 고독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pp. 10-11.
- 최정애. (2000).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pp. 11-12.
- 통계청. (2016). “2015 사망원인통계”.
- _____. (2016). “2015 인구센서스.”
- 홍숙자. (1992). “한국거주노인과 재미교포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황영원. (2006).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p. 29, pp. 46-48.

2. 국외 문헌

- Anderson, T. & Mcculloch, B. (1993). “Conjugal support: Factor structure for older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Gerontology*, 48(3), pp. 133-142.
- Antonucci, T. C. & Akiyama, H. (1995). “Convoys of social relations: Family and friendships within a life span context”,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pp. 363-366.
- Bortz, W. M. & Wallace, D. H. (1999). “Physical Fitness, Aging and Sexuality”, *West Journal Medicine*, pp. 167-169.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pp. 646-653.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 situational difference”, *Journal of Gerontology*, 30, pp. 216-224.
- Carstensen L. L. (1993).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pp. 331-338.
- Covey, H. C. (1989).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sexuality of elderly during the Middle Ages. *The Gerontologist*, 29(1), pp. 93-100.
- Cowgill, D. O. & Holmes, S. D. (1972).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 Appleton Century Crofts, pp. 263-274.

- Diener, E., Larsen, R. J. & Emmons, R. A. (1984). "Person's situation interactions: choice of situations and congruence response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pp. 580-592.
- Drench, M. E. & Losee, R. H. (1996). "Sexuality and sexual Capacities of Elderly People", *Rehabilitation Nursing*, United States: 21(3), pp. 118-123.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 Slected Paper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unt, M. (1974). "Sexual Behavior in the 1970s" Coicago : *Playboy Press*.
- Kahn, R. I. (1979). Aging and social support-aging from birth to death, Riley MW(ED), Bolder Co.
- Kozma, A. & Stones, M. J. (1983).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Gerontology*, 38(5), pp. 626-628.
- Kuhn. (1976). *Sexual myths surrounding aging*, In. W. Oakes, G. Melchivide & I. Fischer (Eds). Sex and the Lifecycle, (New York : Grune & Station, pp. 117-124.
- Larson, R. (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Vol. 33.
- L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 pp. 179-194.

- Mannell, R. C. & Dupuis, S. (1996). *Life satisfaction*, In: Birren, J. E. (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2. Pergamon Press, San Diego, CA.
- Pat O'connor(1993), *Same-gender and Cross-gender Friendships among the Frail Elderly*, *The Gerontologist* 33(1), pp. 24-30.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and Row.
- McCloskey, J. C. (1976). How to make the most of body image theory, *Nursing*, 76(6), pp. 62-72.
- Perlmutter, M. & Hall, E. (1985). *Adult development and aging*, Includes indexes, Bibliography: pp. 535-582.
- Spencer, S. H. (1991). *Psychosexual Therapy: a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 *London: Chapman and Hall*.
- Starr, B. D. & Weiner, M. B. (1981). *The Starr-Weiner Report on sex and sexuality in the mature years*. New York : Stein Day.
- Stones, M. J. & Kozma, A. (1980). The Measurement of Happiness: Development of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 (MUNSH) *The Journal of Grontology*, Gerontol 35 (6): pp. 906-912.
- Weinberg, J. S. (1982). Human sexuality and spinal cord injury,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n*, 17(3), p. 407, pp. 906-912.
- Szalai, A. (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A. Szalai & F. M. Andrews, 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pp. 7-21.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imacy and Sexual Characteristics by Partner Type of Old Age on Subjective Well-Being

Cho, Soo D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imacy and sexual characteristics by partner type of old age, intimacy, sexu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well-being by partner type of old age according to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explore relative impact of intimacy and characteristics by partner type on subjective well-be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data for developing and activating various programs that strengthen formation of intimacy and subjective well-being of partners of old age, the married couple, and friend of the opposite sex.

The summary of research results by research problems is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general tendency of intimacy, sexual characteristic, and subjective well-being of old age, the overall average of marital intimacy and dating relationship of old age was the same of 3.63 points. The overall average of sex cognition was 2.57 points and showed high sex cognition in the order of sexual attitude, sexual importance, and sexual desire. Among respondents with spouse, respondents who are having sex was 43.2% and respondents who are satisfied with sexual life was 37.8%. Among respondents who have friend of the opposite sex, respondents who are having sex was 68.5% and respondents who are satisfied with sexual life was very high of 78.3%. The overall average of subjective well-being was 3.46 points.

2. According to the result of difference in intimacy, sexu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well-being by partner type of old age,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intimacy with a friend of the opposite sex($M=3.63$) and intimacy with spouse($M=3.63$). Also, for specific factors of sex cognition, sexual desire, sexual attitude, and sexual importa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partner type, and showed high sex cognition by partner type in the order of friend of the opposite sex, spouse, and no partner. For difference in having sex life by partner type of old age, 'yes' was high with 68.5% for respondents with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and 'no' was high with 56.8% for respondents with a spouse. Also, for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sex life by partner type of old age, it was identified that respondents who are having sex life with a friend of the opposite sex($M=4.03$) is higher than the respondents who are having sex life with a spouse($M=3.27$).

3.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difference in intimacy, sexu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well-being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old age, the difference in intimacy with a spouse according to gender, health condition, and economic level of respondents was significant. Also, intimacy with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family living together, health condition, and economic level. Also, difference in sex cognition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old a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age, education level, religious status, health condition, and economic level of respondents. Also, sex life with spous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age, education

level, and health condition of respondents, and difference in sexual life satisfaction with spous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education level, family living together, and health condition of respondents. On the other hand, sex life with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age, education level, health condition, and economic level of respondents, and sex life satisfaction with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of old a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education level, family living together, religious status, health condition, and economic level of respondents. Subjective well-being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old a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age, education level, religious status, health condition, and economic level of respondents.

4.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relative impact of intimacy and sexual characteristics by partner type of old age on subjective well-being, it was identified that subjective well-being is higher for women when intimacy with a spouse of old age is higher, economic level and health condition are better, sexual attitude is higher, and sexual desire is lower. On the other hand, it was identified that sexual characteristic did not make significan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intimacy with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and sexual characteristics of old age on subjective well-being, and subjective well-being was higher when respondents who have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showed better health condition and economic level, intimacy with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was higher, older, for female, and when they religion.

This study intends to make the following practical · political sugges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ly a program for forming closeness with partner and relationship strengthening program of old age, and moreover, it would be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and conduct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for strengthening the marital relationship as well as relationship with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of old age at the scene of senior welfare center.

Secondly, professional counseling for old age married couple and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 are being required. Meaning, to solve various problems of the elderly in modern society, integrated approach that conducts preventive and therapeutic approach at the same time as well as professional social welfare practice plans that connect various resources of local community would have to be prepared.

Thirdly, it would be necessary to always provide various services as advance preparation training for healthy sex and dating, prevention of divorce of elderly and second marriage of elderly, and providing opportunities to meet friend of the opposite sex by establishing Marriage Counseling Center for the single elderly.

Fourthly, as a way for generating highly realizable active interest of existing welfare and counseling-related facilities for the aged, it would be necessary to activate the old married couple enrichment program and sexual counseling work that Korea Association of Senior Welfare Center has conducted at a trial level.

Fifthly, for political suggestion, a national level of interest is needed to improve social cognition that sex is not only needed for young people but is also necessary for the elderly as well. It would be necessary to deploy a pan-social movement for realizing the beautiful filial piety culture in welfare · educational · social level to achieve a long-term plan and secure budget for inspiring subjective well-being of the aged and to create a healthy society where seniors get respect.

**Keywords : partner relationship of old age, partner intimacy,
sex cognition, subjective well-being**

부 록

<부록 1> 성 인식도 요인분석

<부록 2> 설문지

<부록 1> 성 인식도 요인분석

성 인식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 인식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를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MO 값이 0.948로 좋으므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8660.672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요인이 기존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에 한하며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요인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고유값이 3.115, 설명비가 31.14%로 나타나 성의 중요성 요인을, 요인 2는 고유값이 2.468, 설명비가 24.68%로 나타나 성 태도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고, 요인 3은 고유값이 2.455, 설명비가 24.54%로 나타나 성 욕구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

<표> 성 인식도의 요인분석

구 분	요인			
	1	2	3	
성 중 요 도	노년기에도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힘들다.	.803		
	성생활은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788		
	성생활을 못하면 살 맛도 없고 의욕도 없다.	.783		
	성생활은 노년기에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618		
성 태 도	노년기에도 성생활에 대해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808	
	노년기에도 성적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자주해야 한다.		.650	
	노년기에도 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634	
성 욕 구	요즘 많은 성 기구나 정력제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855
	배우자가 없더라도 성생활을 하고 싶다.			.682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항상 성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			.629
	고유값	3.115	2.468	2.455
	분산율	31.146	24.684	24.546
	누적분산율	31.146	55.83	80.376
KMO = .948, Bartlett's test결과 $\chi^2=8660.672$ (df=45, p=.000)				

<부록 2> 설문지

조사일시	2016년	월	일
설문번호			

설문지

"노년기 파트너 유형별 친밀감과 성 관련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어르신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우리 어르신들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박사학위 연구논문을 위한 것입니다.

설문 문항은 옳고 그른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오직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평소의 생각과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연구자 : 조 수 동 박사생

지도자 : 박 주 희 교 수

가. 다음은 어르신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빠
 짐없이 '√' 표시 또는 ()속에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 령	만()세
(3) 거주지역	① 서울특별시 ()구 ② 충청북도 ()시/군
(4)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소(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 이상
(5) 가족구성	① 독거 ② 부부 ③ 본인+자녀 ④ 부부+자녀 ⑤ 본인+손자녀 ⑥ 본인+자녀+손자녀 ⑦ 부부+손자녀 ⑧ 부부+자녀+손자녀 ⑨ 기타()
(6) 종 교	① 무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7) 주관적 건강상태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8) 주관적 경제수준	① 하 ② 중하 ③ 보통 ④ 중상 ⑤ 상

나. 평소 느끼시는 주관적인 안녕감에 대한 다음 질문에 어르신들의 느낌과 생각에 가장 가까운 사항(번호)에 빠짐없이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적 안녕감 문항	⑤ 아주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아니다	① 전혀 아니다
1. 세상은 온통 나를 위해 있는 것 같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2. 나는 대체로 기분 좋은 날이 많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3. 나는 살아오면서 대체로 운이 좋은 편이었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4.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체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5.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기 원한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6. 나는 대체로 내 인생에 대해 만족한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7. 나는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행복감을 느낀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8. 내 건강은 내 연령층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더 좋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9. 나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지루하거나 따분하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0. 나는 현재 매우 우울하며 불행하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1.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나의 모든 상황들이 나빠지고 있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2. 나는 대체로 외로움을 느낀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3. 나는 요즘 사소한 일들로 괴롭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4. 나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힘이 든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5. 나는 매우 외롭고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낀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6. 나의 인생길은 대체로 험난했다.	아주 그럼	그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다. 다음은 어르신 의 배우자 유무 및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번호)에 빠짐없이 ‘√’ 표시 또는 ()속에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어르신께서는 배우자가 계십니까?

① 없음

①-1. 홀로되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별 ② 이혼 ③ 미혼 ④ 기타()
 ①-2. 홀로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② 있음

②-1. 현재 배우자와의 친밀한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배우자와의 친밀감 정도	⑤ 아주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아니다	① 전혀 아니다
1. 나의 삶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소중하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2. 배우자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3. 나는 배우자와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4. 나는 배우자에게서 자주 애정을 느낀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5. 나는 배우자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정서적 격려 및 경제적 지원을 한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6. 나는 배우자에게 사적인 비밀을 털어 놓는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7.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②-2. 현재 배우자와 성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① 안한다. ② 한다.
 ■ ‘② 한다’에 답한 분만 응답하세요.
 현재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다음은 배우자가 없이 홀로되신 어르신을 위한 이성친구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번호)에 빠짐없이 '√' 표시 또는 ()속에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어르신께서는 이성친구가 계십니까?

① 없음

①-1. 이성친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롭지 않음으로 ② 흥미를 느끼지 않아서 ③ 자녀나 친지의 이목 때문에
 ④ 배우자에게 충실하기 위해 ⑤ 성적불만이 없음으로 ⑥ 기타()
 ①-2. 이성친구가 없이 홀로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② 있음

②-1. 현재의 이성친구를 만나게 된 사유는?
 ① 외로워서 ② 흥미가 있어서 ③ 자녀나 친지 등의 권유로
 ④ 정신 건강상 ⑤ 성적 만족을 위해 ⑥ 기타()
 ②-2. 현재 이성친구와의 친밀한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성친구와의 친밀감 정도	⑤ 아주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아니다	① 전혀 아니다
1. 나의 삶에서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2. 이성친구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3. 나는 이성친구와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4. 나는 이성친구에게서 자주 애정을 느낀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5. 나는 이성친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정서적 격려 및 경제적 지원을 한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6. 나는 이성친구에게 사적인 비밀을 털어놓는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7. 나는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②-3. 현재 이성친구와 성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① 안한다. ② 한다.

■ '② 한다'에 답한 분만 응답하세요.
 현재 이성친구와의 성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라. 다음은 어르신의 성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번호)에 빠짐없이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생활 인식도 문항		⑤ 아주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 이다	② 아니다	① 전혀 아니다
성 욕 구	1. 비록 몸은 늙어도 마음은 항상 성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2. 요즘 많은 성 기구나 정력제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3. 배우자가 없더라도 성생활을 하고 싶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4. 노인이 되어서도 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성 태 도	5. 노인이 되어서도 성생활에 대해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6. 나이가 들어도 성적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자주해야 한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7. 성생활은 늙어서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성 중 요 도	8. 노인이 되어서도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힘들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9. 성생활을 못하면 살맛도 없고 의욕도 없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10. 성생활은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아주 그림	그림	보통	아님	전혀 아님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